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老人教育의 活性化 方案

－ 老人學校(大學)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昌 榮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洪 仁 基

1996年 6月 日

濟州道 老人教育의 活性化 方案

— 老人學校(大學)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昌 榮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洪 仁 基

洪仁基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6月 日

委 員 長

委 員

委 員

李 洪 鎭
金 性 俊
朴 正 時

目 次

第 1 章 序 論	1
1. 問題提起	1
2. 研究目的	4
3. 研究方法 및 範圍	5
第 2 章 老人教育에 관한 理論的 背景	8
第 1 節 理論的 背景	8
1.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8
가. 現代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	8
1) 現代社會의 變化 要因	9
2) 現代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	14
나. 老人福祉의 問題(Issue)	22
1) 老人福祉의 概念	22
2) 老人福祉의 領域	24
2. 老人福祉에 있어서 老人教育의 重要性	27
가. 老人教育의 重要性	27
나. 老人教育의 目標와 內容	29
다. 老人教育의 原理	31
第 2 節 分析 틀	33
1. 教育主體	35
가. 學生	35
나. 運營 從事者	36
다. 支援部署	37
2. 教育管理	38
가. 講師陣	38
나. 教育課程	40
3. 教育環境	42
가. 施設	42

나. 財政	43
다. 認知度	44
第 3 章 老人學校(大學)의 現況 및 說問調查 分析	45
第 1 節 濟州道 老人學校(大學)의 現況	45
1. 教育主體	45
가. 學生	45
나. 老人學校 運營從事者 現況	46
다. 老人學校(大學) 擔當 行政部署	47
2. 教育管理	48
가. 教育課程	48
나. 講師陣	49
3. 教育環境	49
가. 施設	49
나. 財政	51
第 2 節 說問調查 分析	52
1. 調查內容 및 그 方法	52
2. 說問調查 分析	55
第 4 章 老人教育의 問題點 및 活性化 方案	99
第 1 節 問題點	99
1. 教育主體의 問題點	99
가. 教育關係者의 非專門性 및 그 人員 不足	99
나. 學生 參與의 不振	100
2. 教育管理의 問題點	100
가. 教育課程 運營의 未熟	100
나. 講師의 非專門性	102
3. 教育環境의 問題點	102
가. 運營費 不足	102
나. 教育施設 不足	103

第 2 節 活性化 方案	104
1. 教育主體의 活性化 方案	104
가. 教育參與의 極大化	104
나. 運營從事者의 專門性 提高	105
다. 老人教育 擔當 公務員의 充員과 專門化	105
2. 教育管理의 活性化 方案	106
가. 教育內容과 그 方法의 多樣化	106
나. 專門講師의 確保	111
3. 教育環境의 活性化 方案	114
가. 運營費 確保 方案	114
나. 教育施設의 擴充 方案	115
다. 地域 大學에서 公開講座 運營	116
第 5 章 要約 및 提言	117
參考文獻	121
英文草綠	129
附 錄	132

表 目 次

<表 2-1> 人口構造 變動 推移	13
<表 2-2> 우리나라의 平均壽命 推移	14
<표 2-3> 老人人口(65歲 以上) 增加 推移	14
<表 3-1> 濟州道 老人學校(大學) 學生現況	46
<表 3-2> 老人學校(大學) 運營從事者	47
<表 3-3> 老人學校(大學) 施設 現況	50
<表 3-4> 老人學校(大學) 財政 現況	51
<表 3-5> 調査內容	52
<表 3-6> 調査對象 標本分布	54
<表 3-7> 性別, 年齡, 學歷	56
<表 3-8> 職業 및 生活程度	57
<表 3-9> 出席程度	59
<表 3-10> 職業과 出席程度	59
<表 3-11> 出席하지 않는 날의 餘暇狀態	61
<表 3-12> 性別과 出席하지 않은 날의 餘暇狀態	62
<表 3-13> 運營從事者の 專門性에 대한 意見	63
<表 3-14> 學歷과 運營從事者の 專門性에 대한 意見	64
<表 3-15> 運營從事者와 意見交換 與否	65
<表 3-16> 性別과 意見交換 與否	66
<表 3-17> 年齡과 意見交換 與否	66
<表 3-18> 老人學校(大學)에 다니는 所感	67
<表 3-19> 性別과 老人學校(大學)에 다니는 所感	68
<表 3-20> 行政機關의 行・財政支援 勞力 程度	69
<表 3-21> 性別과 行政機關의 行・財政支援 程度	70
<표 3-22> 活性化의 條件	70
<表 3-23> 講師의 講義姿勢	71
<表 3-24> 講師의 講義能力	72
<表 3-25> 性別과 講師의 講義能力	73
<表 3-26> 學歷과 講師의 講義能力	73
<表 3-27> 가장 듣고 싶은 講師	74
<表 3-28> 講義內容 理解 程度	75

<表 3-29> 性別과 講義理解 程度	76
<表 3-30> 學歷과 講義理解 程度	77
<表 3-31> 年齡과 講義理解 程度	77
<表 3-32> 배우고 싶은 分野	78
<表 3-33> 性別과 배우고 싶은 分野	79
<表 3-34> 職業과 배우고 싶은 分野	80
<表 3-35> 教材에 대한 意見	81
<表 3-36> 性別과 教材에 대한 意見	81
<表 3-37> 教育內容과 自己開發 程度	82
<表 3-38> 學歷과 自己開發 程度	83
<表 3-39> 敎時當 講義時間 程度	83
<表 3-40> 年間 總 講義時間數 程度	84
<表 3-41> 講義方法에 대한 選好度	85
<表 3-42> 性別과 講義方法에 대한 選好度	85
<表 3-43> 學歷과 講義方法 選好度	86
<表 3-44> 教育施設의 狀態 程度	87
<表 3-45> 性別과 教育施設 狀態	88
<表 3-46> 필요한 施設	89
<表 3-47> 性別과 필요한 教育施設	90
<表 3-48> 學歷과 필요한 教育施設	90
<表 3-49> 休息空間 程度	91
<表 3-50> 運營費 確保 方法	92
<表 3-51> 寄附金 納付 用意 與否	93
<表 3-52> 學歷과 寄附金 納付 用意 與否	94
<表 3-53> 生活程度와 寄附金 納付用意 與否	94
<表 3-54> 運營從事者의 豫算確保 勞力 程度	95
<表 3-55> 運營參與 與否	96
<表 3-56> 生活程度와 運營參與 與否	96
<表 3-57> 老人學校(大學) 認知度	98
<表 3-58> 性別과 認知度	98
<表 4-1> '95年度 濟州地域 忠孝·漢文教室 運營狀況	110
<表 4-2> '95學年度 老人學校(大學) 講師陣 現況	113

그림 목 차

<그림 2-1> 분석 틀	34
---------------------	----

제 1 장 序 論

1. 問題提起

1960년 이후 계속된 經濟開發計劃의 추진은 국민소득 만달러와 수출 천억 불 달성이라는 놀라운 經濟成長과 함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重化學工業의 육성에 비중을 둔 高度의 産業化政策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도시화를 급진전시켜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농촌의 疲弊化 현상을 초래하였고 지역간의 經濟發展의 차이로 오는 地域 割據主義를 낳았다. 또한 經濟成長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부의 偏重 現狀을 심화시켰고 사회전반에 과소비 현상과 함께 금전 만능주의라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발생, 사회계층간·집단간·지역간의 부조화와 위화감 등 많은 부정적인 요인을 양산시켜 왔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부족하고,¹⁾ 지속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아직도 선진국의 복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社會福祉政策은 국민복지의 유지 향상을 그 공유의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政策領域에는 社會保險, 社會福祉事業을 축으로 雇傭政策, 財政政策, 住宅政策, 生活環境政策, 教育政策 등이 포함하게 된다. 또한 社會福祉政策은 그 대상에 따라 兒童福祉, 老人福祉, 障礙者福祉, 婦女子福祉 등으로 나누어지는 데, 經濟發展과 시대적인 욕구 등의 하나로 老人福

1) 95년도 제주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세출) 2천6백억여원 중에 노인복지 예산(세출)은 1.69%인 45억여원에 불과하다.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제주, 제주도, 1996, p. 140.

祉 문제를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사회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의 福祉行政 중에서 老人福祉를 위한 福祉政策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를 증가시켜 여타의 福祉政策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老人福祉는 인간의 노후생활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 복지체계와 그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써 노인부양은 사적부양이 아닌 공적·사회적 부양기능으로 이루어진다.

老人福祉政策은 社會保障分野, 各種扶養政策, 老人福祉傳達體系로 구분하여²⁾ 그 정책이 추구되고 있다. 社會保障分野는 社會保險分野, 公的扶助分野, 社會福祉서비스분야로 세분화되어 老人들의 所得保障, 醫療保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扶養政策은 老人들의 가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각종 정책을 의미하며 세제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老人福祉 傳達體系는 老人福祉서비스가 전달되는 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행정체계·지방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 직접적으로 老人福祉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사회보장분야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은 老人의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老人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인 제 측면의 향상이 강하다. 이러한 후자의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도 老人教育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老人教育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급속한 사회변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토록 하며 연령에 의한 노소의 가치, 문화적 갈등을 좁혀 老人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개발과 원만한 사회적응, 다른 연령 집단

2) 최경석·송정부, 「현대노인복지정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p. 180.

과의 연대감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老人問題로 제기되고 있는 여가, 역할상실, 수입감소,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부양 및 보호,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을 老人學校를 통하여 그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老人學校는 교육적 가치보다는 복지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³⁾

우리나라의 老人教育은 老人大學, 老人學校, 老人教室 등의 명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말 현재 426개소이고 이를 이용하는 노인수는 41,1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⁴⁾ 그러나 노인인구에 비하여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정부족으로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施設 또한 낙후한 형편이다.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교육의 주체를 담당하여 운영의 난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教育課程이 진부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質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濟州道の 老人教育 또한 老人大學, 老人學校, 老人教室 등의 명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데 1994년말 현재 14개소⁵⁾이며 이를 이용하는 노인수는 1,25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4년말 현재 濟州道 60세 이상의 老人 49,834명⁶⁾에 비하면 학교의 수가 적고 그 이용률 또한 저조한 편이다. 그 외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老人教育이 활성화

3) 하순옥, “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p. 70.

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서울, 보건사회부, 1994, p. 333.

5) 제주도노인대학, 제주시노인학교, 서귀포시노인학교, 세화노인학교, 남읍노인학교, 표선노인학교, 대정노인학교, 남원노인학교, 성산노인학교, 안덕노인학교, 제주영락노인대학, 사단법인제주사회복지부설노인복지학교, 애록경로대학, 성이시돌노인대학.

6) 제주도, 「제35회 제주도통계연보」, 제주, 제주도, 1995, p. 67.

화되지 못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老人福祉 증진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 研究目的

최근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專門職種の 生成과 技術 및 知識의 빠른 보급으로 教育은 學校 以外の 여러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⁷⁾ 이러한 현실에 따라 老人教育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인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는 노인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용한 장소로서 교육형식은 준 교육기관의 형식을 취하면서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이 자유로이 정하여 주로 강의와 견학 및 여행 등 개인의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집단 및 개별 학습이 행해지는 곳이다.⁸⁾

본 연구는 濟州道에 소재를 둔 老人團體 즉, 大韓老人會 濟州聯合會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大學, 大韓老人會 濟州市·西歸浦市支會 및 大韓老人會 北·南濟州郡支會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學校(大學)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老人教育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老人大學은 老人大學運營規定, 老人學校는 老人學校運營規定에 근거하여 그 施設을 갖추고, 講師陣을 구성하여 다양한 教育課程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老人教育에 관한 專門家 不足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이 학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老人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7) David Landes, "The Creation of Knowledge and Technique : Today's Task and Yesterday's Experience," *Daedalus*, Vol. 109, No.1, 1980, p. 111.

8) 김순희, "노인대학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 3.

첫째, 現代社會의 變化要因에 그 原因을 두고 있는 老人問題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老人福祉政策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政策들 중에 教育增進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老人教育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理論的 背景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조사분석을 위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위변수와 하위변수를 모색하였는 데, 상위변수로는 教育主體, 教育管理, 教育環境이다. 각 상위변수에 따라 教育主體에는 學生, 運營從事者, 支援部署를, 教育管理에는 講師陣, 教育課程을, 教育環境에는 施設, 財政, 認知度を 하위변수로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老人教育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제주도 老人學校(大學)의 현황과 앞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에 따라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근거하여 濟州道 老人教育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研究方法 및 範圍

본 연구는 文獻研究와 實證的 研究를 병행하였다. 老人教育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기 위하여 社會福祉論, 老人福祉論, 老人教育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검토하였다. 老人教育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 분석 틀을 세워 변수를 모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사내용을 작성하였다.

老人教育의 연구를 위한 조사분석은 大韓老人會 濟州聯合會가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大學과 大韓老人會 市 및 郡 支會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學校에 한정하였다. 大韓老人會 定款에 의하면 老人大學과 老人學校 이외에 初等學校學區單位老人教室을 學區單位 老人會가 初等學校와 협력하여 주관·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1991년 현재 전국에 6054개의 학구단위 운영교실이 개설되어 있으나 운영미숙, 예산부족, 참여노인 부족, 전문가부족 등

으로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다.⁹⁾ 특히 濟州道 지역에서는 현재 老人敎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老人敎室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老人敎室이 제외된 것은 학교를 설치한 주체 또는 학교 운영자의 성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¹⁰⁾ 학교마다 敎育課程이 판이하게 다르고, 단체의 성격상 입학자격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老人敎室을 일률적으로 분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老人敎育의 분석 등에서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입학자격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敎育課程이 서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강의시간과 시간수가 같으며 제주시 老人學校는 老人大學의 施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를 편의상 老人學校(大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大韓老人會 濟州聯合會 및 각 支會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는 濟州道の 行政區域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다. 老人大學은 濟州道 전체를 통하여 제주시 1개소 있으며, 老人學校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북제주군 2개소, 남제주군 5개소로 전체 9개소가 있다. 老人大學과 市 支會의 老人學校를 제외한 郡支會 老人學校에 대한 조사는 그 대상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 표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북제주군 1개소, 남제주군 1개소에 한정하였다. 결국 老人大學 1개소와 老人學校 4개소를 대상으로 1995학년도 在學生 전체 319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 조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설문도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9) 허 흥, “한국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2, p. 23.

10) 하순옥, 전개논문, p. 7.

노력하였다.

상기의 研究方法과 범위에 따라 본 논문은 전문 5개의 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는 서론을 통하여 問題提起, 研究目的, 研究方法 및 範圍를 제시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현대사회의 변화요인과 이에 근거하는 노인문제의 유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노인복지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내용을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또한 노인교육에 관한 조사분석의 전단계로서 분석 틀을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하위변수와 상위변수를 모색하였다. 第3章에는 앞서 제시한 변수에 근거하여 濟州道 老人學校(大學)의 현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 틀에 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第4章에는 第2章에서 다룬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그리고 第3章에서 제시한 老人學校(大學)의 현황과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濟州道 老人教育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근거하여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第5章은 결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였다.

第 2 章 老人教育에 관한 理論的 背景

第 1 節 理論的 背景

1.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가. 現代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

한국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高度産業社會로 진입하였던 1970년말,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이다¹¹⁾. 고도산업사회¹²⁾는 사회변동이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켜 사회구조·기능의 변화, 사회규범의 해체 및 무력화 그리고 일탈 등을 초래하여 노동문제, 실업문제, 인구문제, 주택문제, 청소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시켜 왔다¹³⁾. 노인문제 또한 이러한 고도산업사회의 진전속에서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고도산업사회가 양산시킨 노인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게 위해서는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욱 진전되는 가치관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 진전, 가족

11)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1990, p. 17.

12) 고도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고도직업계층의 개방성 증대와 사회이동의 증대로 직업계층의 구조변동이 현저해 질 것이다. ② 산업적 권력의 거대화에 따라 경영 엘리트가 형성되는 반면 노동조합의 대항력이 증대할 것이다. 또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권력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조직확대에 따른 경영 엘리트의 계층 분화는 專門分化에 따른 분권화를 촉진시킨다. 산업민주주의 진전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촉진시키게 됨으로써 산업에 있어서 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③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생활양식의 중간층화로 직업소득계층의 평준화가 촉진될 것이다. 安藤喜久雄, 梅澤孝 編著, 「現代社會の變動」, 東京, 新評論; 신섭중,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3, p. 73. 에서 재인용.

13) 상계서, p. 67

개념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1) 現代社會의 變化 要因

(1) 價値觀의 變化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간의 규범적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역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치관의 문제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근대적 가치로 규정되는 합리주의, 보편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업적주의 등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水平的 關係를 강조하고 자신의 主體性과 人格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를 해야하는 契約과 信賴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통적 集團主義的 價値인 종속주의, 권위주의, 파벌주의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孝가 전통적인 중심가치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많은 손상을 입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해체과정을 겪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정치적·종교적·교육적 기능이 점점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능률지상주의'와 이익의 극대화 현상에 따른 '능력없는 자의 도태'는 인정과 정서를 메말라 가게 하고 이해타산적인 사고를 유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은 과거의 가부장적 권위에서 밀려나 무능력, 무기력한 존재로서 비생산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扶養意識 또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2) 産業化와 都市化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産業化 및 都市化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산업화란 어느 사회가 1차산업 위주의 국가정책에서 벗어나 2·3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농업생산자는 줄고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¹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차, 2차, 3차 산업 比重이 1990년에 각각 18.3%, 27.3%, 54.4%에서 1996년에는 12.6%, 28.4%, 59.0%로 1차산업이 적어지는 반면 3차산업이 커지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1990년에 각각 42.0%, 3.8%, 54.2%에서 1996년에는 35.2%, 3.8%, 61.0%로 3차 산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¹⁵⁾.

미래사회는 도시화된 사회¹⁶⁾이고 도시화는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때 도시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¹⁷⁾은 1960년 28.0%, 70년 41.0%, 80년 57.3%, 90년 74.4%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00년에는 80.6%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세계의 그 비율은 42.7%, 선진국은 72.7%로 나타나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선진국을 上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解體시키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산업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성별 또는 연령층에 따른 사회불평등이다.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도시 집중 현상은 대도시의 저임금, 저소득생활자와 무주택가구를 증가시켜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노인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는 노년층을 가족과 직업,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으며¹⁸⁾ 사회가 근대화하면 할수록 노년층의 지위는

14) 김동일, “근대화와 노인문제”, 「한국노인학」 제1권, 서울, 한국노인학회, 1980, p. 80.

15)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2

16) 최정호, “도시문화”, 「도시문제」, 서울, 도시문제연구소, 1983, 9월호, p. 70.

17)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제40회, 서울, 보건사회부, 1994, p. 8.

18) Talcott Parson,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낮아지고 사회의 주요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결과는 老人으로 하여금 경제생활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威脅을 주어 노령에서 야기되는 孤獨感, 疎外感을 加重시키고 있다.²⁰⁾

(3) 家族概念의 變化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농업경영을 바탕으로 한 대가족제도이다. 그러나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제도는 대체로 확대가족제도에서 核家族制度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이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分擔해야 하는 경제적 입장에서 擴大家族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 이후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소비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구성 규모를 縮小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²¹⁾

핵가족제도는 애정을 기반으로 결합된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되며, 既婚子女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부모부양 책임을 기피하는 가족제도이다.²²⁾ 핵가족의 특징²³⁾은 첫째, 부부가 동등한 權威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부부간의 노동력 배분에 彈力性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쉽게 逆轉 된다는 것 셋째, 거의 모든 친구가 부부의 공통적 친구라는 것 넷째, 부부의 성격이 조화롭다는 것 다섯째, 친구나 이웃사람에 의한 사회적 구속이 최소한이라는 점 여섯째, 부부는 여가활동을 대부분 함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1942, p. 604.

19) Cowgill Donald Q and Lowelyn D. Holmes, Aging and Modernization, NY., Appleton Century-Crofts, 1972, p. 39.

20) Ernest W. Burgess, Aging in Weston Culture in Burgess ed., Agin in Weston Societies, A Comparative Surv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 25-36.

21) 정길수 외, 「사회학개론」, 서울, 학문사, 1982, pp. 114-122.

22) W. T. Goode,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p. 10-18.

23) E. W. Burgess, 森幹郎 譯, 「西歐諸國における 老人問題」, 東京, 社會保障出版社, 1975, p. 457.

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核家族制度에서 老人들의 役割²⁴⁾은 첫째, 아들 夫婦의 性生活에 대해 노인부모는 도움보다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둘째, 경제적 활동을 위한 유력한 존재가 못되며 셋째, 생식활동에 있어서도 노인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자를 돌보는 정도이고 넷째,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노인부모의 역할은 제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핵가족의 형태에서는 노인의 지위는 배제되고 부부와 자녀들을 우선하는 價値觀이 형성되며²⁵⁾ 老人의 역할은 매우 縮小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노인문제를 量産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핵가족제도와는 달리 제주도인 경우는 노부모와의 同居形態로 고유한 <박거리모형>²⁶⁾이 있다. 노인들은 이러한 동거형태를 통하여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 독립적인 地位를 確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적,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模型도 지금에 와서는 자녀들이 他地로 分家 또는 住居形態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다.²⁷⁾ 우리나라 핵가족제도의 문제점이 제주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4) 人口의 老齡化

1960년 이후 진행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문명 특히, 의학기술과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매년

24) 최순만,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1993, p. 148.

25)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p. 17.

26) 이 모형은 제주도 노인의 주거형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한 울타리를 표준으로 할 때 3세대가 살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직계가족이지만 기능적 내지 규범적으로는 분리된 두 개 내지 세 개의 실질적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친족체계이며 민주화된 가족형태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대가족제도와 핵가족제도의 장점을 결합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창영, “지방자치와 노인복지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와 제주도」, 제주, 제주도지방자치연구회, 1990, pp. 160-163.

27)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85.

증가하고 있다.

<表 2-1>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6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9%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 5.0%, 1993년 5.4%, 2000년 6.8%, 2010년 9.4%로 그 증가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령화사회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말하며 고령인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²⁸⁾

<表 2-1> 인구구조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 - 14세		15 - 64세		65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960	25,012	10,588	42.3	13,698	54.8	726	2.9
1970	32,241	13,709	42.5	17,541	54.4	991	3.1
1980	38,124	12,951	34.0	23,771	62.2	1,456	3.8
1990	42,869	11,077	25.8	29,648	69.2	2,144	5.0
1993	44,056	10,728	24.4	30,966	70.3	2,362	5.4
2000	46,789	9,917	21.2	33,705	72.0	3,168	6.8
2010	49,683	9,510	19.1	35,505	71.5	4,668	9.4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제40회, 1994, p. 267.

이 고령화사회는 食生活 改善과 醫療技術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加速化가 예상된다. <表 2-2>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1960년에 55.3세에서 1990년에 71.3세로 연장되었고, 2000년에는 74.3세, 2021년에는 77.0세로 豫見된다. 60년에서 90년사이 30년 동안 16년이 연장되었고, 2000

28) 한국주택협회, 「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주택협회, 1993, p. 39.

년에는 90년보다 3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연장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65세 노인인구가 <표 2-3>과 같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	2021	1990		
							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평균수명	55.3	63.2	65.8	71.3	74.3	77.0	62.3	74.0	60.6
-남자(세)	53.0	59.8	62.7	67.4	71.3	74.9	60.8	70.4	59.4
-여자(세)	57.8	66.7	69.1	75.4	77.4	79.1	63.8	77.7	61.9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제40회, 1994. p. 26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老人들의 가치관 변화, 삶의 질 중시, 노인집단의 압력단체화, 정부재정부담, 노인부양 및 老人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 등의 여러가지 老人問題를 발생시키며 우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노인인구	전국	2,643	2,660	2,885	2,990	3,168	3,956
	제주	34	36	37	40	41	49
비율(%)	전국	5.9	6.1	6.3	6.5	6.8	8.2
	제주	6.6	6.9	7.2	7.5	7.8	9.3

자료 : 제주도, 제주도형 사회복지시책, 1996. p. 126.

2) 現代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

앞서 기술한 고도산업사회의 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6가지로 집약하여²⁹⁾ 그 樣相을 설명하고자 한다.

(1) 餘暇時間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의료기술과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사망률이 점차 저하되어 사람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노령기는 연장되고 한편으로는 停年制로 인한 退職이 바로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되어 노령기가 매우 길어지고 있다. 餘暇時間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의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自矜心과 자아정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³⁰⁾는 점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주1회 이상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가 95.7%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현재 즐기는 일로 TV시청이 5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일이 없다는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³¹⁾ 이러한 여가상태를 增進시키 위한 시설로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노인정)과 노인학교(대학)가 있다. 그러나

29)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pp. 25-30.

30) R. C. Atcheiy,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Continuity or Crisis ?", Gerontolojst, 11, 1971, pp. 13-17.

31)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p. 189-190.

전국적인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 중에 바둑과 화투가 약 88%를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주도인 경우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있어 전국적인性向과 비슷하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노인의 勤勉性 때문에 여가활동에 시간적인 제약성이 있다는 점이다.³²⁾ 그리고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인교실(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노인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층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교육이수자의 교육에 대한 満足度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이처럼 노인여가 시설의 부족과 프로그램 개발의 취약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이 겪는 고민들 중에 하나이다.

(2) 役制喪失

생산체계가 가족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 변모함에 따라 가족노동력이 저하되고 이에 결부하여 출산율이 저하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기술이 機械化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勞動力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서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화된 노인은 競争에 뒤지게 되었고, 특히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職種이 나타나 구태의연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젊은이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退職이 制度化 되어 노인은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고용 및 정년현황을 통하여 살펴본다.

고령자 고용 현황을 보면 1993. 2. 1 현재 300인 이상 事業場의 55세 이상 고령자는 45,305명으로 전체 근로자 2,171,653명의 2.09%이다. 고령자 고용

32) 상계서, pp. 193-194.

33) 상계서, p. 198.

비율별로 조사대상사업체를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勸奨하는 고령자 비율 3%를 넘는 사업장이 423개소(24%), 3%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1,296개소이며 고령자 고용비율이 1%미만 사업장도 778개소(45.2%)나 된다. 그리고 고령자 정년현황을 보면 고용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1,719개소 중 1,386개소가 일률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률정년제 1,386개소 중 1,386개소(64.3%)가 55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55세 미만 정년 사업장은 21개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企業體의 경우 노인에 대한 고용수준이 낮고 정년 또한 55세로 낮은 편이다. 제주도의 경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1개소에 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의 適用에 限界性이 있고 제주도 기업의 소규모성, 零細性 등으로 기업에 대한 就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制約되고 있다.³⁴⁾

직업적 역할은 自我 또는 社會的 自我를 지켜주는 지지대였는데 고용수준의 저하와 정년제의 실시로 노인들이 직업역할에서 排除됨으로써 자아기반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역할 상실한 많은 노인인구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노령기의 적절한 役割과 規範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은 역할 상실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3) 收入節減

퇴직 등으로 인한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어 수입이 감소되고 이를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이를 대치하고 있으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약 14만명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992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약 35.0%인 70만 명 내외의 노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³⁵⁾으로 判斷되고 있다.

34) 상계서, pp. 161-163

35) 박재간,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그 현주소", 「국회보」, 서울, 국회사무처, 1992.

수입원의 단절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의 37.6%가 勤勞所得을 자신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指摘하고 있고, 자녀의 도움을 주된 수입원으로 지정한 노인의 비율은 4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의 도움이 노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나 제주도 노인의 경우 自立性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보다는 낮은게 사실이다.³⁶⁾ 또한 제주도 노인의 한달 용돈 액수는 10만원대가 36%로 가장 많고, 6만원 이하도 45%로 나타나고 있다.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70%가 부족하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한 용돈 액수는 10만원대가 30%로 가장 많고 다음이 4-6만원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만원대의 용돈을 받지 못하여 용돈의 궁핍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子女의 도움에 限界性과 制限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⁷⁾

이처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에 依存하고 수입 절감으로 인한 용돈 부족 현상은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을 子女에게 완전히 의존케 하고 노인들을 빈곤상태로 빠뜨리게 함으로써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4) 健康弱화 및 健康保護問題

노인은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老化로 인한 건강약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은 유병률에 있어서 젊은이들 보다 2-3배 높고 만성적 질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1994년 65세 이상 노인의 86.8%가 관절통,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연령별 유병률은 65-69세 86.3%, 70세-74세 84.7%, 75세 이상 89.7%로 연령이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7, p. 90.

36)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p. 159-160.

37) 상계서, pp. 159-161.

의료이용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여 1993년 현재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209,507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의료비 102,265원보다 두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경우 월 소요되는 醫療費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소요되는 의료비는 1-2만원이 25%로 가장 많았고 6만원대 이하가 68%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 그 액수는 1-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³⁸⁾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노인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농촌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은 지속적이고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통하여 유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노화의 속도를 遲延시켜 안락한 노후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건강 보호문제는 노인의 문제로서 크게 유의되어야 한다.

(5) 扶養 및 保護問題

扶養이란 노인과 부양자 양측 모두 전생애를 통하여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것³⁹⁾으로 부모 자녀 간의 상호 도움 관계⁴⁰⁾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관계는 생애를 통해 계속되는 데,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들을 도와 주지만 부모와 자녀의 연령이 많아 짐에 따라 도움 패턴에 변화가 생겨 부모가 身體的 또는 認知的 損傷으로 생활에 障礙를 받게 될 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 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依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노인의 經濟的 自立 狀態에 대한 分

38) 상계서, pp. 172-176.

39) Nancy W. Sheehan & Paul Nuttall,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Family Relations*, 1988, pp. 37-92.

40) Cicirelli, V.G. "Adult Children and Their Eldly Parents",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

布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은 28.6%, 의존하고 있는 노인은 71.4%로 나타난 사실⁴¹⁾⁴²⁾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가운데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2천3백89명으로 나타나⁴³⁾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거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0%가 同居하고 있으며 60%는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이는 제주도의 경우 노인들의 자립성이 강하여 장자를 結婚시키면서 분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별거가 곧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別居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非同同居에 따른 경제적 부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여가활동, 나아가서 자아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며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양의 형태이므로 경제적 부양 문제가 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중의 하나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노인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노인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이유를 몸시중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고 있으며⁴⁵⁾, 다른 연구에서도 몸시중이 동거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 점⁴⁶⁾을 보더라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시화·핵가족화로 부모와 자녀 간의 物理的인 별거 현상이 증

41)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p. 46.

42) 송효석,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p. 38.

43) 제민일보 사설, 1996년 6월 21일 3면.

44)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82.

45) 현두일, “한국노인의 생활구조에 관한 사회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20권, 1976.

46) 이옥재, “한국 도시노인에 관한 연구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p. 57.

가, 주부의 취업 증가 그리고 인구정책으로 인한 노인 부양 인원의 감소 때문에 노인의 보호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노인들은 몸이 쇠약해졌을 때 돌보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아들이 28%, 딸이 15%라고 응답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자녀와 별거에 따른 부양과 보호문제는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유로양로원을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6) 社會的 및 心理的 孤立과 疎外

교육의 大衆化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아 부모의 지식수준이 자녀의 그것보다 낮고 뒤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社會化의 差異를 가져와 세대 간의 孤立과 葛藤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價值觀 差異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고립과 갈등은 가정과 사회에서 세대 간의 孤立과 疎外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부모와 동거·별거문제, 부모 부양문제 등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핵심요소인 都市化는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은 社會的 地位의 顛倒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어 세대 간의 孤立을 초래하고 있다. 지리적 이동은 가치관 또는 사회화의 차이와 더불어 核家族化를 촉진시켜 부모와 자녀 간의 空間的 孤立을 가져와서 결국 사회와 노인 간, 젊은이와 노인 세대 간,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인들의 슬픔과 孤獨感에 관한 한 연구에서 보면,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노인이 30.8%, 고독을 느끼는 노인이 69.2%로 나타나고⁴⁸⁾있어 고립과 소외로 인한 孤獨感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한 영

47)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88.

48) 이윤경,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 9.

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나. 老人福祉의 問題(Issue)

노인복지는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하여 노인이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현대사회의 변화 요인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정도가 깊어지고 있어 노인 문제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제국이 이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문제에 대한 예측 부족, 투자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對備를 계속적으로 해오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국민소득, 경제규모에 비하여 그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이고 과감한 投資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인복지의 이해를 위하여 그 개념을 살펴보고, 개괄적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老人福祉制度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老人福祉의 概念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외의 국제노년학회,⁴⁹⁾ 브린(Leonard Z. Breen)⁵⁰⁾, C. Tibbitts⁵¹⁾의 정의가 있고, 국내의 김성순교수⁵²⁾, 서병숙교수⁵³⁾, 한창영교수⁵⁴⁾등의 정의가 있다. 이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노인이란 “정신적·

49)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1984, p. 80.에서 재인용

50)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 147-148 ;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p. 60에서 재인용.

51) C. Tibbitts, Origin Scope and field of Social Gerontology, 1960, p. 10.

52) 김성순, 전제서, p. 61.

53)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1, p. 3.

54) 한창영, “노인의 개념 규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31집, 제주대학교,

육체적 기능의 감퇴와 함께 개인의 건강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란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社會福祉는 넓게는 현대화, 좁게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긴 社會問題를 해결하고 다양해진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慾求를 충족시키 위한 社會的 制度이고⁵⁵⁾, 老人福祉는 많은 사회문제들 중 특히 老人에게 일어나는 問題를 해결하고 老人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⁵⁶⁾으로서 社會福祉 分野의 하나이다. 따라서 老人福祉는 노화현상을 연구하는 純粹科學이 아니고 老化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가지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으로서 노화의 과정과 현상을 연구하는 노년학과는 구별이 된다. 老人福祉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老人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概念과 範圍가 명확하지가 않아⁵⁷⁾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老人福祉의 개념은 廣義의 概念과 狹義의 概念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⁸⁾ 廣義의 概念으로서 老人福祉란 모든 老人의 생활 상에 있어서 안정과 의료혜택의 보장, 직업의 보장, 주택, 교육, recreation 그리고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社會的 政策의 전체를 의미한다. 狹義의 개념으로서 老人福祉란 노령은퇴,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와 가족의 사별, 애정의 상실 등으로 보람을 잃어버린 老人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公的扶助나 生活指導, 心身의 養護나 自立 助長 등 구체적인 保護・育成・更生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개인의 老人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느끼며 長壽를 누릴 수 있

1990, pp. 226-227.

55) 장인협·최성재, 전계서, pp. 265-266.

56) 김성순, 전계서, p. 63.

57) 상계서, p. 64.

58) 人間知千代, 「老年福祉學」, 下卷, 名古屋, 中部日本教育文化會, 1979, pp. 22-23.
; 김계삼, 「노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1983, p. 56 에서 재인용.

도록 援助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老人福祉란 “老人이 인간다운 생활을 營爲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適應하고 統合될 수 있도록 필요한 資源과 서비스를 提供하는 데 관련된 公的 및 私的 次元에서 조직적 제반 활동”⁵⁹⁾이라고도 定義하기도 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老人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위해 야기되는 사회생활 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적 원조로서 노인문제를 예방, 완화 또는 해소하는 모든 해결책을 가르치는 것이다”⁶⁰⁾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老人福祉란 “비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한 老人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肉體的·精神的으로 보다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經濟·社會·文化的 여건을 造成해 주고 충분한 서비스의 提供과 制度的 保障을 확립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실현케 하는 것이다.”⁶¹⁾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상의 개념을 통하여 老人福祉의 政策方向은 광의의 개념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認識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老人福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자 한다.

老人福祉란 “老人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統合될 수 있도록 필요한 資源과 서비스를 提供하는 데 관련된 公的 및 私的次元에서 조직적 제반 활동과정이다.”⁶²⁾

2) 老人福祉의 領域

사회복지분야의 하나로서 老人福祉는 老人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문제제기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회보장

59) 장인협·최성재, 전게서, p. 266.

60)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p. 317.

61) 김성순, 전게서, pp. 64-65.

62) 한창영,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32집, 제주대학교, 1991, p. 237.

분야, 각종부양정책, 노인복지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그 정책이 추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분야는 사회보험분야, 공적부조분야, 사회복지서비스분야로 세분화되어 노인들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여가활동 선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분야에서 사회보험은 연금제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는 데 연금 제도는 연금적용 대상자가 어떠한 사회적 사고 즉, 질병·폐질·실업·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상실에 대해서 保險原理에 의거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制度이며⁶³⁾, 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의 증진을 目的으로 하는 社會保障의 중추적 기능을 擔當하는 社會保障制度이다. 공적부조분야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사회보험에 의한 年金惠澤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最低限度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個人 또는 家族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補助해주는 方法이다.⁶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및 신체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專門的인 知識과 方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復歸시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인 제 측면의 서비스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독립과 자기충족을 달성하고 유지하며 지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정보제공과 의뢰, 교통, 범죄예방, 법률 부조 및 거택이나 시설적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⁶⁵⁾ 현재 老人福祉法(1981)과 사회복지사업법(1970)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와 재가

63) 김상규 외, 「사회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3, pp. 169-170.

64) 장인협·최성재, 전계서, p. 294.

65) 상계서, p. 360.

노인서비스 등에 대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사업, 노인복지건강증진사업, 경로우대제, 소득보충사업, 교육과 여가서비스사업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 등으로 크게 6가지로 區分된다.⁶⁶⁾ 노인복지시설사업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복지건강증진사업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경로우대제는 우대업종을 지정하여 요금할인, 승차권 지급의 방법으로 施行되고 있고, 소득보충사업은 노인노력은 행,⁶⁷⁾ 노인공동작업장⁶⁸⁾을 통하여 노인들의 所得保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在家老人서비스는 노인단독세대 중 저소득층,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老人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家庭奉仕員制度⁶⁹⁾의 시범적 실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오락 기타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교육과 여가서비스사업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데, 교육은 老人學校(大學), 여가서비스사업은 노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老人教育은 老人福祉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앞서 기술한 다른 사업들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老人들에 대해 再教育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동년배들끼리 학교시설 내에 머물며 취미 오락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學生들 상호 간에 對話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고독과 소외 그리고 무료함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

66) 최경석·송정부, 전계서, p. 191.

67) 제주도의 경우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에서 1983년 6월 1일 노인노력은행을 설치하여 제주시지회와 남제주군지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데, 제주시지회 노인노력은행 실적으로는 91~94년도간 장기취업자 285명, 단기취업자 9,518명을 취업 알선한 것이다.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65.

68) 제주도의 경우 1995년도 노인공동작업장이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 노인수는 1,228명이고 연평균 수익금은 93,55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서, p. 145.

69) 제주도의 경우 이 제도가 보급된지 일관하여 아직 초창기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이 부정적이다. 이 제도에 대한 이용여부는 46.5%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상계서, pp. 201-203.

고 있다.

2. 老人福祉에 있어서 老人教育의 重要性

노인복지서비스사업 중에 老人教育은 老人福祉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⁷⁰⁾ 이는 앞서 기술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孤獨과 疎外감을 解消하고 노후생활의 목표를 수립토록하여 그들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등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그 必要性和 目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지향하는 目標와 內容 그리고 그 原理를 기술하고자 한다.

가. 老人教育의 重要性

교육은 인간의 향상 발전에 있어 必須的인 것으로서 인간의 可能性을 끌어내어 참다운 自己實現을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도 스스로를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지식만으로는 노년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젊은 세대들과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노인들에게 현대사회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키우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고독과 소외감 등을 없애 주어 삶의 보람을 찾아 老後를 보람있게 해주기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교육은 노인들에게 健康과 營養에 대한 情報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⁷¹⁾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新舊格差를 줄이고 급변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전통문화와 미풍양식을 젊은 세대에 올바르게 繼承시키는 時代的 使命感에서 노인교육의 필요

70) 서병숙, 전계서, p. 149.

71) Dianna S. Woodruff, James E. Birren, Aging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mpany, 1983, pp. 11-12.

성이 강조되기도 한다.⁷²⁾

老人教育은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老人들이 겪는 병고, 빈고, 고독감, 무위감 등을 덜어주고 老人들 자신이 스스로 問題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 목적을 더욱 세분화하면⁷³⁾, ① 老人教育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② 老人教育은 老人들로 하여금 급속한 社會變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老人教育은 연령에 의한 노소의 가치, 문화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④ 老人教育은 老人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원만한 사회 적응, 다른 연령 집단과 연대감을 통해 안정된 老後를 보내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老人教育은 老人이 갖고 있는 適應의 기능과 창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老人教育은 그 성격에 있어 첫째, 老人의 현실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단기적인 사회 복지적 성격이 강해야 한다. 둘째, 老人을 위한 교육은 仲裁的 性格이 강해야 한다. 즉, 老人 스스로 갖고 있으나 인지나 이해하지 못하는 行動的 缺陷(인지 및 잠재력)을 보충, 예방, 방지, 경감시켜 주는 성격이 강해야 한다. 셋째, 老人을 위한 교육은 대개 준비성 마련의 성격이 강해야 한다. 즉, 자기 스스로의 교육과 성찰로 다가올 미래를 수용하게 만들 수 있는 현존의 多樣性을 수용하게 만드는 성격이 강해야 한다.⁷⁴⁾

또한 老人教育은 두 가지의 領域으로 細分하여 論하기도 한다.⁷⁵⁾ 첫째 평생학습, 둘째 삶의 주기학습이다. 평생학습은 교육현상을 평생의 학습과정으로 간주하는 교육활동이다. 평생학습의 哲學은 늙었다고 배우지 못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삶의 주기학습은 사회구성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개인적, 가정적, 직업세계 등 인생의 특정과정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認知・理解・準備하는 삶의 변화를 마련하는 준비 교육이

72) 서병숙, 전계서, pp. 150-151.

73) 상계서, p. 152.

74) 대한노인복지연구원, 「노인복지총람」, 서울, 대한노인복지연구원, 1990, p. 537.

75) 상계서, pp. 537-538.

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領域에 따라 教育內容 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老人教育과 관련하여, 성인교육은 청장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재생산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교육⁷⁶⁾이므로 老人教育과 概念的 差異를 지니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나. 老人教育의 目標와 內容

老人教育의 내용은 老人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老人教育의 목표를 구현한다는 側面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욕구는 개개인의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망 사항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老人의 교육적 욕구로는 環境適應에 대한 욕구, 표현에 대한 욕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 영향을 주려는 욕구, 인간 존재의 초월성에 대한 욕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목표란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行動變化를 지칭하는 것⁷⁷⁾으로서 교육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목표는 교육에서 의도하고 계획하는 인간변화의 방향과 질을 포괄하는 행동특성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老人教育의 목표⁷⁸⁾를 개인생활의 목표, 인간관계의 목표, 경제생활의 목표, 국가생활의 목표로 區分하기도 한다.

개인생활의 목표로는 자주적 생활태도의 증진, 새로운 지식의 흡수, 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함양 등을 들 수 있고, 인간관계의 목표로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 동년배 집단과의 심리적 연대감 모색, 가정의 가풍을 발전시키려는 태도 습득, 민주적 가정의 건설을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생활의 목표로는 경제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그 지식 및 기술 함양, 경제적 자립의 증진, 경제건설에 봉사

76) 상계서, p. 245.

77) 김중서·이영덕·정원식, 「최신교육학개론」, 서울, 교육문화사, 1991, p. 41.

78) 김중서, “노인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세미나 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4, pp. 222-231.

하는 태도 습득 등을 들 수 있으며, 국가생활의 목표로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 도모,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전달,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추구,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증진,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인식과 방법 습득, 노인복지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동향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老人教育의 내용을 다섯가지로 集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⁷⁹⁾

첫째, 개인생활과 관련되는 학습내용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극복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종, 종교 및 신앙심과 관련된 학습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심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老人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수용능력을 키워 정확한 判斷力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人間關係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老人들이 스스로 自立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에 따른 지식과 기술이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여가 시간이 많은 老人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自負心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변화에 역점을 두는 다양한 내용이 教育內容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老人들을 위한 教育內容은 일률적으로 모든 老人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老人들의 성별, 학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79) 서병숙, 전계서, p. 154.

그리고 老人教育을 위한 활동에 있어 그 계획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작성되거나 권위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 老人教育의 原理

老人教育은 노인 특유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그 教育方法은 他年齡階層에 대한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 이유는 老人들이 처해 있는 외부적 상황과 老人의 特性 및 課業 그리고 교육 욕구가 다른 연령집단과는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습의 原理는 학습자의 연령 및 경험과 학습자가 지니는 내·외적인 특성, 학습자의 성숙 정도 등을 基礎로 하여 형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 原理는 다음과 같다⁸⁰⁾.

1) 現實과 連結된 生活의 原理

노년기의 교육은 현실과 연결된 老人의 생활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老人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축적되어온 각각 다른 經驗과 體驗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배경으로 한 교육적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解決하고자 하는 데서 교육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학습활동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체험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2) 自己 活動을 통한 個別化와 社會化의 原理

老人教育은 老人들의 흥미와 욕구에 입각한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의 個別化와 社會化를 실현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실천에 옮길

80) 서병숙, 전제서, pp. 157-159.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自己活動이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自主的인 태도를 의미하며, 個別化는 老人教育이 학습자 개개인의 個性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社會化는 老人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老人教育은 일률적이고 통계적인 학습 방법보다 소집단 형태로 老人들이 주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적응 능력을 開發・發展시키는 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直觀 및 經驗의 原理

老人教育은 그들의 과거 경험을 중시하고 學習過程이 그들의 감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분명한 학습자료를 제시하여 老人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학습 활동이 장려되어 직감적이며 실천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작업이 教育課程에 투입되어야 한다.

4) 多樣化 및 體系化의 原理

老人教育은 융통성 있고 다양하면서 체계화된 學習體制가 되어야 한다. 老人의 생물학적, 심리적 발전단계와 적절하게 相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여 다양하게 展開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 그 자체에 의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학습자료나 내용은 提供되어서는 안된다.

5) 師弟同行 및 敬老의 原理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老人의 학습 활동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指示나 학습자의 맹목적인 追從關係가 아니라 상호공동으로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老人들과 協同하여 계획을 세우고 實踐・評價되어야 한다.

교육 활동에 경로사상을 중시하여 강사는 경로사상에 투철한 資質을 지닌 자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老人들이 강사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질 수 있어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며 교육의 效果를 상승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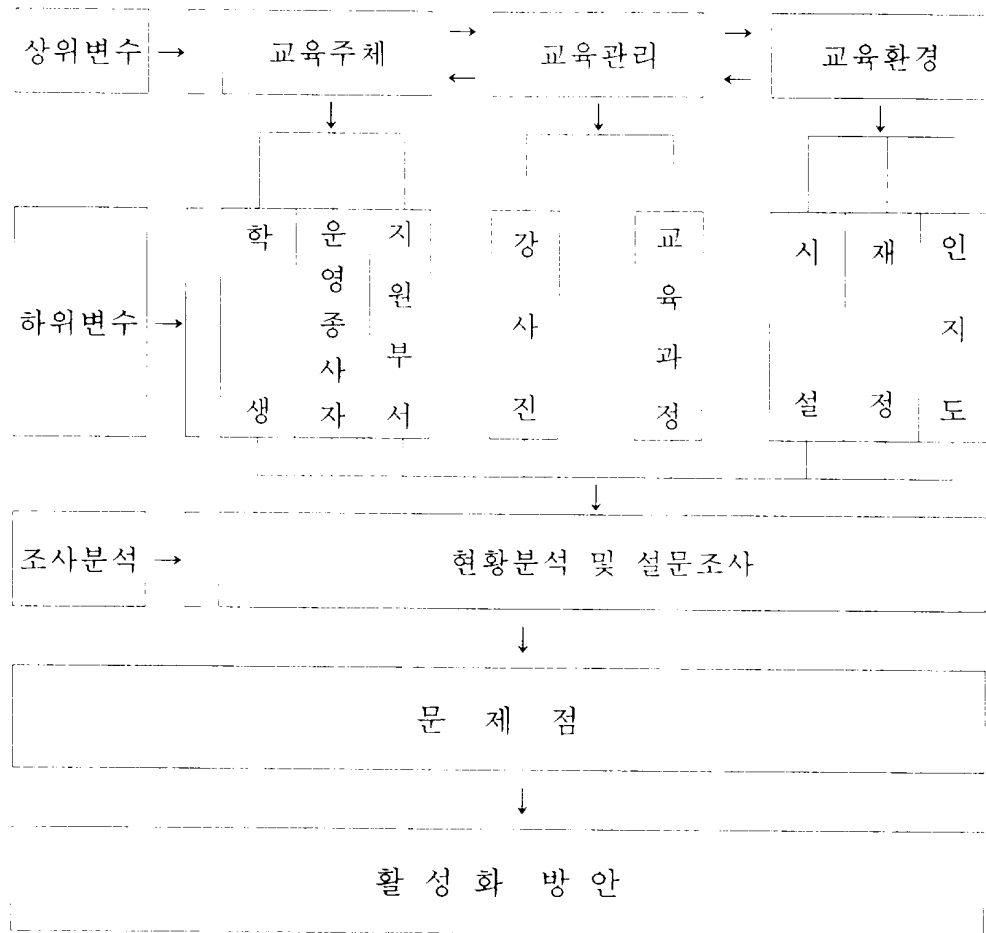
第 2 節 分析 틀

老人教育의 조사분석에 관한 합의된 틀이 아직까지 提示되고 있지 않다. 다만 연구자들이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調査의 領域을 設定하여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노인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분석 틀을 設定하고 노인교육의 분석을 위한 상위변수와 하위변수를 모색하였다. 그 분석을 위한 변수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여 다양한 變數를 도출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변수의 선정에 限界點이 존재하고 있음을 承認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국내·외의 노인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태를 설명·분석한 資料들을 수집·분석하여 변수를 선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이라는 일정한 範圍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분석을 위한 변수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변수로는 教育主體, 教育管理, 教育環境을 선정하였다. 教育主體에는 學生, 運營從事者, 支援部署를 하위변수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평소 여가상

<그림 2-1> 분석 틀



태, 출석정도, 운영종사자의 전문성 정도, 행정기관의 행·재정지원 노력정도, 老人學校(大學)의 활성화 조건 등을 조사하였고, 教育管理에는 講師陣, 教育課程을 하위변수로 선정하여 강사진의 강의자세, 강의능력, 듣고싶은 강사, 강의 이해도, 배우고 싶은 분야, 교재, 교육과 자기개발 정도, 강의방법, 강의시간 및 강의시수 등을 조사였다. 教育環境에는 施設, 財政, 認知度を 하위변수로 선정하여 시설 상태 정도, 필요한 시설, 휴식공간 정도, 운영비

확보방법, 노인학교 운영 참여여부, 운영종사자의 예산확보 노력정도, 老人學校(大學)에 대한 인지 수단 등을 조사하였다.

1. 教育主體

가. 學生

教育主體의 하나인 老人學校(大學)學生은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고 있다. 사회에서 은퇴하여 그 역할의 상실과 그로 인한 孤獨 또는 노쇠현상에 따른 건강의 부진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노인들은 현대의 세대보다는 교육을 덜 받은 세대이므로 老人學校(大學)學生들의 학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학력의 노인들은 老人學校(大學)가 저학력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편견적인 사고로 입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자의 입학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⁸¹⁾ 남자들은 60세가 넘어도 개인 사업 등으로 現實參與가 많아 여가시간이 여자들보다 적은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어느 하나의 原因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노인들의 직업 또한 老人學校(大學)의 참여에 영향을 주어 個人事業을 하거나 농·축산업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老人學校(大學)에 많이 참여하게 되며, 生活水準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老人學校(大學)에 많이 參與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활을 위한 經濟力은 매우 낮은 편이다.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병고, 빈고, 고독감, 무위감 등을 덜어 주

81) 하순옥, 전 계 논문, p. 36.

고 노인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노인들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들이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 教育環境 改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조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함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시간에 그들의 활동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강의 일수, 시간수 등을 調整함으로써 교육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즉, 노인들이 허비하는 시간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運營 從事者

老人教育의 運營從事者는 老人學校(大學)를 運營하는 主體로서 老人教育에 관한 專門性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學生들과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마련하여 教育課程 등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노인학교의 運營從事者는 老人教育의 전문요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老人教育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과 동시에 그 유형과 범위가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⁸²⁾ 노인교육은 老人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教育課程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편성, 적절한 강사진의 선정, 教育環境의 개선 등은 老人教育 運營從事者들의

82) 서병숙, 전제서, p. 168.

전문성에 의존하는 필수적인 事項들이다.

또한 노인교육은 노인들의 삶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운영종사자는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교육내용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老人學校(大學)을 다니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老人學校(大學) 운영에 반영하여 敎育課程의 編成 및 施設 擴充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支援部署

노인교육이 행해지는 老人學校(大學)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福祉政策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의 지원은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학교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지원이 강조된다.

행정기관의 지원금은 정책적인 것으로 매우 彈力的이다.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老人福祉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老人敎育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福祉政策의 담당자는 정부라는 인식을 老人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행정적으로 노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重複하여 맡아 노인교육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상이 불식되어야 한다.

2. 教育管理

가. 講師陣

老人學校(大學)의 講師陣은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老人들은 성인들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함으로써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낙오되기가 쉽고 자녀세대들의 경제적 지위가 老人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두 높아 劣等感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權威主義에 집착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여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보람찬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강의능력과 강의자세가 훌륭해야 하며 강사의 선정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사의 강의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老人들이 강사의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老人教育의 문제점으로 강사들의 專門性이 없고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⁸³⁾을 指摘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강사의 강의 능력이 老人教育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강의는 교과목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로 강의 수준이 높아 老人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短點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老人學校(大學)의 강사는 老人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老人學校(大學)는 대부분의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고, 피교육자가 특정 분야의 경험도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사는 강의에 앞서 老人을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강사는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세밀한 점까지

83) 상계서, p. 198.

신경을 쓰는 경로사상이 투철한 資質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⁸⁴⁾

老人學校(大學)의 講師陣의 구성은 教育課程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老人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老人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設計하기 위한 지식을 흡수하기 위하여 老人學校(大學)를 찾게 된다. 이에 맞는 教育課程의 수립이 요구되며 또한 이에 맞는 강사의 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강사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강사, 지역사회의 기관장, 사회저명인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老人學校(大學)의 講師陣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學生의 요구나 능력에 맞는 教育課程을 미리 設定해 놓고 그 교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 초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⁸⁵⁾ 그러나 강사의 선정이 學生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教科目을 중심으로 학생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⁸⁶⁾

급속한 정보량의 증가와 전자통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특정 지워지는 정보화시대는 학문의 세분화와 함께 다수의 전문적인 用語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사의 강의 또한 이들의 用語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지식에 한정되어 있는 學生들은 강의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세대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세대를 살아온 老人들이 강사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限界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學生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강의 수준과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로사상이 투철하고 教育課程에 따른 능력이 있는 강사가 學生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의를 할 때 교육의 效率性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족, 강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84) 김종서, 전계논문, p. 215.

85) 하순옥, 전계논문, pp. 42-43.

86) 상계논문, p. 46.

나. 敎育課程

敎育課程은 敎育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敎育의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老人들은 노후생활의 설계, 건강한 생활, 취미활동,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의 이유로 老人學校(大學)를 입학하게 된다. 이러한 老人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老人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가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강의 시간수와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時間表를 작성하며 교재의 선택, 강의방법 등에 대한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老人敎育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老人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가와 관련되는 敎育內容의 선정과 조직은 일반원칙⁸⁷⁾을 따라야 한다. 敎育內容은 敎育目標가 시사하는 바로 그 행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老人들의 능력, 필요, 흥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들이 요망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老人들의 經驗과 밀착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의 조직은 반복을 통한 학습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직하고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도록 系列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老人들의 경험 속에 敎育內容이 統合되도록 조직하고 하나의 敎育內容이 여러 가지의 敎育目標와 관련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老人敎育의 敎育內容은 일반원칙과는 동떨어지게 일정한 基準이 없고 학교마다 각양각색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⁸⁸⁾ 특히 敎育內容이 學生들의 자기개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추후 내용의 선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표한 敎育성과도를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老人을 위한 敎育은

87) 김종서, 전거서, pp. 232-236.

88) 권찬오,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본 노인교육의 실태와 그 효율적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p. 53.

老人들이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쇠퇴와 조락의 시기가 아닌 계속적인 발달과 성장의 시기로서 노년기를 위한 교육⁸⁹⁾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데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教育內容의 전달과 관련하여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훈련기간을 짧게 하고 휴식시간을 빈번하게 가질 수 있도록 教育課程이 작성되어야 한다.⁹⁰⁾ 그리고 강의시간 또한 老人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 교육과는 달리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教育內容의 전달 수단인 학습교재는 가능한 한 意味價가 높고 老人에게 익숙한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교재는 정식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성별에 따라 교재의 선택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⁹¹⁾을 認識하고 있어야 한다.

教育內容이 정해지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教育內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강의방법이 알맞지 않으면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강의방법은 학교교육과 청소년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이는 老人들의 신체적·지적·사회적·정서적 특징 뿐만 아니라 老人들의 생활 패턴이 청소년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방법은 교실학습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學習을 구분하지 말고 老人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강의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강의방법으로는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시범법, 구안법, 현장견학, 조사활동, 지역사회 자원인사의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구시의 老人學校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學生들은 교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靜的인 강의방법을 選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²⁾ 따라서 강의가 지식을 전달하는

89) 한정란, “우리나라 노인교육 가능성과 새로운 자리 매김”, 「아산」, 춘계호, 통권 제66호,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5, p. 29.

90) 윤 진, “노인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세미나 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4, pp. 141-142.

91) 하순옥, 전개논문, pp. 54-56.

92) 최진순, “노인의 사회교육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 48.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강의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⁹³⁾ 강의 방법은 教育內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老人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教育內容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의시간수, 교재선택, 강의방법에 대한 작성은 학교 운영자의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老人學生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강사에 맞춰 教育內容을 선정하면 學生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부족과 시설미비 등으로 인하여 강의시간과 교재선택 및 강의방법을 一方的으로 결정할 경우는 교육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學生들과 운영종사자가 상호협동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소기의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3. 教育環境

가. 施設

老人教育을 위한 施設로는 강의실, 시청각실, 컴퓨터시설, 냉·난방시설, 취미시설, 휴식공간, 슬라이드 등을 들 수 있다. 강의실에는 學生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책·결상, 흑판, 교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책·결상은 老人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老人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교실의 온도, 환기 등에 주의를 기울여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청각실과 다양한 시청각교재가 마련되어 최대한 활동되어야 한다. 이는 문자를 통해서 보다는 감각을 통하여 외계사물을 접하는 것

93) United Nations, Handbook of Training in the Public Service, New York,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Branch, 1956, pp. 235-241.

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리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각교재로는 사진, 그림, 슬라이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청각교재를 통한 강의는 구체성을 띄게 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인상적이 될 수 있다.⁹⁴⁾ 시청각교재의 선택은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敎育內容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老人學校의 노인들은 老人學校에 나와 고독과 소외에서 탈피하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老人學校는 敎育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공동의 광장에서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어울리고 수업시간 외에 계속 학교에 남아서 친구들과 지내는 휴식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취미생활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老人學校에 설치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敎育施設이 현실적으로 매우 노후화되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실이나 책·결상과 같은 敎育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조차 미비된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고 보면 그 외의 시설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 財政

앞서 제시한 변수들 중에 講師陣, 敎育課程, 敎育施設을 財政과 관련지어 보면 財政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講師陣의 選定, 敎育內容 作成 및 講義方法, 敎育施設 등은 老人敎育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이 사항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하나 부정적인 상태에 직면하면 老人敎育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쳐 그 성과도에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敎育內容에 알맞은 강사를 선정할 수 없다면 고급 지식을 습득할 수

94) 김종서, 전제서, p. 243.

없음은 당연한 사실임과 동시에 교육내용 작성 자체가 강사의 선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내용 작성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강의방법을 강의법에만 의존한다거나 敎育施設이 미비하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재정부족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재정문제가 老人敎育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老人學校의 財政은 學生들의 수업료나 회비, 행정기관의 지원금, 지역사회 유지의 찬조금, 각종사회단체의 기부금, 학교운영자의 부담, 老人學校(大學) 졸업자들로 조직된 동창회의 기부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學生들의 수업료나 회비는 學生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액수를 정해야 하고 그 액수가 많아 입학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지원금은 앞서 支援部署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지역사회유지의 후원금이나 각종사회단체의 기부금은 강제성이 없는 것인 만큼 운영종사자들은 이들을 방문하여 老人敎育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또한 老人學校(大學) 졸업자로 조직된 동창회 모임을 수시로 접촉하여 이들이 학교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認知度

노인들이 老人學校(大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들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老人學校(大學)가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老人들만이 입학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도 모르는 老人들이 부지기수이며 敎育內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에게 老人學校(大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홍보책자 등을 이용하여 입학에 관한 절차,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야 한다.

老人教育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 老人學校(大學)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老人教育이 일반학교 교육이 아닌 만큼 老人들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老人教育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달성해내는 길이며 이는 老人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第 3 章 老人學校(大學)의 現況 및 說問調查 分析

第 1 節 濟州道 老人學校(大學)의 現況

제주도 노인교육의 현황을 教育主體의 下位變數인 學生, 老人學校(大學) 運營從事者, 老人學校(大學) 擔當 行政部署, 教育管理의 下位變數인 教育課程, 講師陣, 教育環境의 下位變數인 財政, 施設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현황은 濟州道 전 지역을 대상으로 大韓老人會가 주관·운영하고 있는 老人學校(大學)를 중심으로 1995년도에 한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1. 教育主體

가. 學生

大韓老人會 濟州道聯合會 산하 老人教育을 위한 老人學校와 老人大學은 <表 3-1>과 같이 총 10개소가 있으며, 학생수는 老人大學 64명, 老人學校 500명이다. 남자 156명, 여자 408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2배 이상 많고 학

교마다 상대적으로 여자 學生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표선, 대정, 남원, 안덕 老人學校의 경우 남자 學生의 수가 단 몇 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교 당 학생수는 80명 이하가 전부이다.

<表 3-1> 濟州道 老人學校(大學) 學生現況

학 교 명	학생수(명)			비고
	남	여	계	
제주도 노인대학	34	30	64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부설 노인학교	10	66	76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부설 노인학교	18	48	66	
대한노인회 북제주군지회부설 세화노인학교	28	32	60	
대한노인회 북제주군지회부설 남읍노인학교	22	38	60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부설 표선노인학교	4	47	51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부설 대정노인학교	4	49	53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부설 남원노인학교	2	39	41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부설 성산노인학교	33	15	48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부설 안덕노인학교	1	44	45	
계	156	408	564	

자료 : 제주도 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지부, 대한노인회 북·남제주군지회.

나. 老人學校 運營從事者 現況

제주도의 노인학교(대학) 운영종사자 현황은 <表 3-2>와 같이 濟州道老人大學은 학교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총무부장, 보조원 각 1명, 濟州市老人學校는 교장의 사무국장, 복지부장, 보조원 각 1명, 西歸浦市老人學校는 사무국장, 보조원 각 1명이 학교 운영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大韓老人會 濟州聯合會 직원을 겸직하면서 연합회 업무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비는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북제주군 지회의 세화·남읍노인학교는 교장 1인과 총무 1인이 학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총무는 老人會 지회

총무 일도 같이 하고 있다. 남제주군 지회의 각 老人學校는 교장 1인과 교무주임 1인이 학교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데 교무주임은 老人會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자원봉사형식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3-2> 老人學校(大學) 運營從事者

노인학교명(대학)	학장 (교장)	운영종사자수	자격증 소비여부	비고
제주도노인대학	1	사무처장 1명, 총무부장 1명, 보조원 1명	없음	
제주시노인학교	1	사무국장, 복지부장, 보조원 각각 1명	"	
서귀포시노인학교	1	사무국장, 보조원 각각 1명	"	
세화노인학교	1	총무 1명	"	
남읍노인학교	1	"	"	
표선노인학교	1	교무주임 1명	"	
대정노인학교	1	"	"	
남원노인학교	1	"	"	
성산노인학교	1	"	"	
안덕노인학교	1	"	"	

자료 : 제주도 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지부, 대한노인회 북·남제주군지회.

다. 老人學校(大學) 擔當 行政部署

노인학교(대학) 담당 행정부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濟州道の 老人福祉 業務는 사회복지여성국 산하 복지과 老人福祉係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직 5급 1인, 지방행정직 7급 2명(교육담당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는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老人福祉係에서 老人教育業務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 6급, 7급 각 1명, 지방행정직 9급 1명, 지

방기능직 1명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의 각 동은 시민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데, 지방행정직 6급, 별정직 7급, 행정직 8급, 기능직 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제주군에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급은 지방행정직 6급, 7급이다. 읍사무소에서는 사회계가, 면사무소에서는 복지계가 老人福祉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남제주군에서는 복지과 老人福祉係 지방행정직 6급, 7급 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읍사무소에서는 사회계가, 면사무소에서는 복지계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서들의 관장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법인 및 시설의 지도 육성, 노인복지 관련 단체 육성, 경로효친사상 양양, 노인건강진단 및 노후소득 보장제도 운영,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경로우대제도 운영, 재가노인복지 사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지도, 가정의례준칙 지도 등이다.

노인교육은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教育管理

가. 教育課程

1995년도 각 老人學校(大學)의 教育課程 現況은 <부록 2>와 같다. 教育內容은 건강관리, 교양, 레크레이션, 취미 및 여가활동, 사회·경제의 전문적인 분야,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시·군정 홍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과목이 전 老人學校(大學)에 개설되어 있어 老人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국가시책과 시·군정 홍보가 각 老人大學(學校)마다 개설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방자치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이러

한 教育內容은 제주도 이외의 지역과 대동소이하고 그외 특이한 것은 없다.

총 강의시간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30-50시간 범위 내이고 건강관리에 대한 老人들의 관심도에 비해 관련 강의시간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강의기간 또한 老人學校(大學)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강의일은 매주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외에 화·금요일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의는 강의일에 2-3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나. 講師陣

노인학교(대학)의 강사진 현황은 <부록 1>과 같이 전문강사, 지역사회의 기관장, 사회저명인사, 의사, 교수, 전·현직 교육계 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약·의사가 조금 있고,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시책과 시·군정 홍보의 과목 개설에 따른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가 있고 체육과 오락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강사가 몇 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講師陣은 대체적으로 老人教育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보다는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老人學校(大學)에 따라 講師陣의 社會的 지명도는 老人大學 및 市 老人學校에 비하여 郡地域 老人學校가 낮은 편이다.

3. 教育環境

가. 施設

제주도 노인학교(대학)의 시설물 현황은 <表 3-3>과 같으며, 제주도로인 대학과 제주시노인학교는 제주도로인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로인학교는 서귀포시노인회관, 세화노인학교와 남읍노인학교는 마을소유의 노인회관, 표선노인학교는 표선면복지회관, 대정노인학교는 모슬포

<表 3-3> 老人學校(大學) 施設 現況

학교명	구분	자체 소유	무상 사용	임대 사용	시설 없음	비 고
제주도노인대학 제주시노인학교	학교건물		0			대강의실 1개 51평 화석수 51개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300각, 책상 50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TV 1대, VTR 1대, 녹음기 1대
	레크레이션 교재		0			피아노 1대, 장구 2개
	기 타					
서귀포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108.54㎡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100각, 휴관 2개
	시청각교재				0	
	레크레이션 교재				0	
	기 타	0				물리치료기 1조
세화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20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50각, 책상 50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TV 1대, VTR 1대, 녹음기 1대
	레크레이션 교재	0				장구 1개, 북 1개, 노래반주기 1대
	기 타					물리치료기 10종
남읍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42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70각, 책상 70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TV 1대, 녹음기 1대
	레크레이션 교재	0				장구 1개, 북 1개, 노래반주기 1대
	기 타	0				물리치료기 10종
표선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25평, 휴게실 5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60각, 책상 2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TV 1대, VTR 1대, 앰프 1조
	레크레이션 교재					
	기 타					
대정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60평, 휴게실 10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90각, 책상 50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TV 1대, VTR 1대, 앰프 1대
	레크레이션 교재		0			장구 2개, 북 1개
	기 타					
남원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20평, 휴게실 4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70각, 책상 3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레크레이션 교재					
	기 타					
안덕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20평, 휴게실 5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70각, 책상 2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앰프 1조, TV 1대, VTR 1대
	레크레이션 교재					
	기 타					
성산노인학교	학교건물		0			강의실 30평, 휴게실 5평
	의자, 책상, 휴관		0			의자 80각, 책상 50각, 휴관 1개
	시청각교재		0			앰프 1조
	레크레이션 교재					
	기 타					

자료 : 제주도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 지부, 대한노인회 북·남제주군 지회.

노인회관, 남원노인학교는 남원1리복지회관, 성산노인학교는 성산농업협동조합 건물, 안덕노인학교는 안덕면복지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財政

老人學校(大學)의 財政을 수혜자부담, 운영자부담, 행정기관의 보조, 기타 찬조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 <表 3-4>이다. 老人學校(大學)마다 財政 구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수혜자 부담에서는 전부가 동일하고 운영자 부담은 남읍노인학교에 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보조는 일률적으로 老人學校 당 1,8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老人大學인 경우 道 차원에서 보조가 6,540천원, 서귀포시로인학교인 경우 시 보조가 1,920천원으로 타 老人學校에 없는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외 세화노인학교와 남읍노인학교에 한해서 각각 찬조금 500천원, 2,000천원이 財政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3-4> 老人學校(大學) 財政 現況

(단위 : 천원)

학교명	수혜자 부담	운영자 부담	지방자치 단체보조	기타 찬조금	계	비고
제주도노인대학			시 : 1,800 도 : 6,540		8,340	
제주시노인학교			시 : 1,800		1,800	
서귀포시노인학교			시 : 3,720		3,720	
남읍노인학교		500	군 : 1,800	500	2,800	
세화노인학교			군 : 1,800	2,000	3,800	
표선노인학교			군 : 1,800		1,800	
대정노인학교			군 : 1,800		1,800	
남원노인학교			군 : 1,800		1,800	
성산노인학교			군 : 1,800		1,800	
안덕노인학교			군 : 1,800		1,800	

자료 : 제주도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지부, 대한노인회 북·남제주군지회.

第 2 節 說問調査 分析

1. 調査内容 및 그 方法

가. 調査内容

老人教育의 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의 설정에 따라 <表 3-5>와 같이 조사내용을 정하고 이를 설문으로 작성하였다.

<表 3-5> 調査内容

상위 변수	내용 하위변수	조사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교육 주체	학 생	○ 출석 정도 ○ 여가상태	2	7, 8
	운영종사자	○ 종사자의 전문성 정도 ○ 다니는 소감 ○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 여부	3	9, 27 30
	지원부서	○ 행정기관의 행·재정 지원 노력 정도 ○ 노인학교(대학)활성화 조건	2	24, 28
교육 관리	강 사 진	○ 강사의 강의자세 ○ 강사의 강의능력 ○ 듣고 싶은 강사 ○ 강의의 이해도	4	10, 11, 12, 13
	교육과정	○ 배우고 싶은 분야 ○ 교재선택 ○ 교육과 자기개발 정도 ○ 강의방법 ○ 총 강의시간수 ○ 교시당 강의시간 정도	6	14, 15, 16, 17, 18, 19
교육 환경	교육시설	○ 시설의 상태 정도 ○ 필요한 시설 ○ 휴식공간 정도	3	20, 21 22,
	교육재정	○ 운영비 확보방법 ○ 기부 참여 용의 ○ 노인학교 운영 참여여부 ○ 운영관계자의 예산 확보 노력 정도	4	23, 25, 26, 29
	교육인지도	○ 노인학교(대학)에 대한 인지 수단	1	6

나. 標本抽出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2개의 시(제주시, 서귀포시)와 2개의 군(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 大韓老人會 제주연합회와 각 지회에는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濟州道 전 지역을 대상으로 老人教育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濟州道の 행정구역에 따라 老人大學을 제외하고는 2개의 시와 2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 학교수와 학생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은 다음의 방법에 따랐다.

첫째, 老人大學은 濟州道 전 지역을 통틀어 1개소가 있다. 현재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大韓老人會 濟州聯合會 주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5년도 이 대학 전체 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시지역의 老人學校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로 총 2개소가 있다. 제주시지회 老人學校는 제주시, 서귀포시지회 老人學校는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大韓老人會 濟州市支會와 西歸浦市支會가 각각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5년도 제주시지회 노인학교 전체 재학생 76명과 서귀포시지회 老人學校 전체 재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총 142명을 조사하였다.

셋째, 군 지역의 老人學校는 북군 2개소, 남군 5개소로 총 7개소가 있다. 북군에는 대한로인회 북제주군지회 부설 남읍노인학교, 구좌노인학교가 각각 남읍리와 세화리에 소재하고 있고, 남군에는 대정노인학교, 성산노인학교, 남원노인학교, 표선노인학교, 안덕노인학교가 각각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支會老人會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지역 전체 노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대상학교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 北郡과 南郡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학교 각각 1개소씩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北郡地域에는 남읍노인학교가 선정되어 1995년도 재학생 전체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남군지역에는 대정노인학교가 선정되어 1995년도 재학생 전체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군 지역 조사대상자는 113명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表 3-6>과 같이 노인대학 1개소와 노인학교 4개소의 재학생 총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老人大學과 老人學校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설문조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老人大學과 老人學校의 운영종사자들과 직접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表 3-6> 調査對象 標本分布

조사대상학교명	재학생수	배포 및 회수			폐기수	조사에 사용된 부수	사용율 (%)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			
제주도 노인대학	64	64	60	93.7	3	57	95.0
제주시 노인학교	76	76	70	92.1	10	60	85.7
서귀포시 노인학교	66	66	62	93.9	3	59	95.2
남읍노인학교	60	60	50	83.3	4	46	92.0
대정노인학교	53	53	50	94.3	6	44	88.0
계	319	319	292	91.5	26	266	91.1

이번 조사에서는 <表 3-6>과 같이 총 319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그 중 91.5%인 292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 유효 설문지는 91.1%인 266부로 나타났다. 설문지 조사는 1996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다. 資料處理方法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모두 컴퓨터로 처리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단순분석과 함께 교차분석을 하였는데, 단순분석은 각 문항에 한정하였고 교차분석은 일반사항과 하위변수인 學生, 運營從事者, 支援部署,

講師陣, 教育課程, 施設, 財政, 認知度の 각 문항 간에 유의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교차분석에는 유의성의 검증을 위하여 X^2 (Chi-square)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확률값 즉, $P>0.05$ 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차분석 시에는 원자료와는 달리 통합된 表, 예를 들면 「전부 이해한다」와 「거의 이해하는 편이다」는 긍정으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정으로 하였고, 「보통이다」는 중립으로 하였다. 이렇게 답항을 통합한 이유는 교차분석시 빈Cell에 포함된 표본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가 있어 Cell를 통합하여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졸업자가 한 명도 없어 교차분석시 이를 제외시켰다.

설문지 분석은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說問調查 分析

가. 標本의 特性

老人教育의 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性別, 年齡, 學歷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준은 <表 3-7>과 같다. 성별의 구분은 남자 79명(29.7%), 여자 187명(70.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지식에 대한 욕구 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이를 해석할 수는 없는 듯 하다. 연령은 60세 미만이 6명(2.3%), 60-64세가 81명(30.5%), 65-69세가 66명(24.8%), 70-74세가 73명(27.4%)으로 60-74세가 전체 學生의

82.7%에 이르고 있다. 또한 75세-79세가 33명(12.4%), 80세 이상이 7명(2.6%)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7> 性別, 年齡, 學歷

성 별			연 령			학 력		
구분	인원	비율 (%)	구분	인원	비율 (%)	구분	인원	비율 (%)
남	79	29.7	60세 미만	6	2.3	무학	76	28.6
			60-64세	81	30.5	서당	37	13.9
			65-69세	66	24.8	초등학교 졸	85	32.9
여	187	70.3	70-74세	73	27.4	중학교 졸	45	16.9
			75-79세	33	12.4	고등학교 졸	23	8.6
			80세 이상	7	2.6	대학교 졸 이상	0	0.0
계	266	100	계	266	100	계	266	100

학력은 무학이 76명(28.6%), 서당이 37명(13.9%), 초등학교 졸업이 85명(32.9%), 중학교 졸업이 45명(16.9%), 고등학교 졸업이 23명(8.6%)으로 전체 학생의 74.6%가 초등학교 이하의 졸업자이며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이상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職業 및 生活程度

직업은 <表 3-8>과 같이 농·수산업이 131명(49.2%), 무직이 93명(35.0%), 기타 직업이 20명(7.5%), 서비스업(숙박업,음식점등)이 11명(4.1%), 개인사업이 10명(3.8%), 회사원이 1명(0.4%)순으로 나타나 농·수산업 종사자 수가 전체에서 거의 50%에 이르고 있고 특히, 무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 3-8>은 생활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 「보통이다」가 212명(79.7%), 「어려운 편이다」가 40명(15.0%)으로 응답자의 94.7% 이상이 중류 또는 중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表 3-8> 職業 및 生活程度

직업			생활 정도		
구분	인원	비율 (%)	구분	인원	비율 (%)
농·수산업	131	49.2	매우 부유하다	5	1.9
개인사업	10	3.8	부유하다	6	2.3
서비스업(숙박업,음식점 등)	11	4.1	보통이다	212	79.7
회사원	1	0.4	어려운 편이다	40	15.0
무직	93	35.0	매우 어려운 편이다	3	1.1
기타	20	7.5			
계	266	100	계	266	100

이 몇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활수준은 경제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재정상실과 경제적 만족도 간에는 負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⁹⁵⁾. 따라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남녀노인 모두가 경제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며,⁹⁶⁾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수준이나 용돈 정도에 따라 소외, 노후생활, 건강 등의 문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⁹⁷⁾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⁹⁸⁾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울감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진다⁹⁹⁾는 점을 유의하여 老人教育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94.7% 이상이 중하위

95) N. Krause,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an",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 No 2, 1991, pp. 84-92.

96) 윤현희,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 80.

97) 최정혜,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제4호, 1990, p. 130. ; 박의련·유영주,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1989, p. 208.

98) 윤현희, 전제논문, p. 66.

99) 박현숙,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3, p. 48.

생활을 하고 있는 老人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나. 說問調査 分析

1) 教育主體

가) 學生

앞서 표본의 특성에서 살펴 본 것처럼 老人學校(大學)學生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대다수이지만 60세 미만인 경우도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노인을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老人學校(大學)의 입학의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老人學生들이 학력은 매우 낮은 편이며 그 이유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인들이 老人學校(大學)는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老人學校(大學)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생활수준이 보통인 노인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老人學生들이 그들의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老人學校(大學)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출석정도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1) 出席程度

노인학교(대학) 출석정도는 <표 3-9>와 같이 「아주 잘 출석한다」 73명(27.4%), 「대체적으로 잘 출석하는 편이다」 93명(35.0%)으로 과반수(62.4%) 이상이 출석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결석한다」 17명(6.4%), 「자주 결석한다」가 5명(1.9%)으로 나타나 출석에 적극적이지 못한 學生들도 8.3%에 이르고 있다. 그외 「보통이다」가 78명(29.3%)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老人教育이 흥미를 유발

할 수 없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表 3-9> 出席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잘 출석한다	73	27.4
대체적으로 잘 출석하는 편이다	93	35.0
보통이다	78	29.3
가끔 결석한다	17	6.4
자주 결석한다	5	1.9
계	266	100

<表 3-10> 職業과 出席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잘출석한다	보통이다	결석한다	계
농·수산업	83/31.2	39/14.7	9/3.4	131/49.2
	63.4/50.0	29.8/50.0	6.9/40.9	100
개인사업	8/3.0	2/0.8	0/0.0	10/3.8
	80.0/4.8	20.0/2.6	0.0/0.0	100
서비스업(숙박업, 음식점 등)	8/3.0	2/0.8	1/0.4	11/4.1
	72.7/4.8	18.2/2.6	9.1/4.5	100
회사원	1/0.4	0/0.0	0/0.0	1/0.4
	100.0/0.6	0.0/0.0	0.0/0.0	100
무직	53/19.9	28/10.5	12/4.5	93/35.0
	57.0/31.9	30.1/35.9	12.9/54.5	100
기타	13/4.9	7/2.6	0/0.0	20/7.5
	65.0/7.8	35.0/9.0	0.0/0.0	100
계	166/62.4	78/29.3	22/8.3	266
	100	100	100	100
X ² = 7.988351 DF = 10 N.S				

<表 3-10>은 직업과 출석정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P값이 0.6300으

로 나타나 이들 간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직업에 따라 출석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老人學校(大學)에 出席하지 않는 날의 餘暇 狀態

老人學校(大學)에 출석하지 않는 날의 여가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老人學生들이 허비하는 시간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表 3-11>은 老人이 老人學校(大學)에 출석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정에 나간다」가 80명(30.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애를 돌본다」가 74명(27.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본다」, 「취미 활동을 한다」, 「종교활동을 한다」, 「가족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사회모임에 참석한다」, 「독서를 한다」, 「기타」 등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表 3-11>에서 나타난 것처럼 출석하지 않은 날에는 노인정에 나가는 경우가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정은 동·리의 지역적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적이며 일차집단적 성격을 지닌 노인집단의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老人들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⁰⁰⁾ 그리고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老人들의 모여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지역단체로서의 명시적·비명시적 기능과 친목도모, 휴식 등 지역사회 서비스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 가정복지과에 의하면 제주도에 1995. 10. 31 현재 194개의 노인정이 있으며 5,915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정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또는 라디오 청취

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경로당)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p. 9-10.

나 TV시청 수준에 머물고 있어 老人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다양하지 못하고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점 등¹⁰¹⁾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노인정이 앞서 지적한 다양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老人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老人學校(大學)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3-11> 출석하지 않는 날의 여가 상태

구 분	인원	비율(%)
노인정에 나간다	80	30.1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37	13.9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애를 돌본다	74	27.8
취미활동(바둑, 장기, 서예 등)을 한다	15	5.6
종교활동(교회, 절 등 방문)을 한다	14	5.3
가족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10	3.8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본다	22	8.3
사회모임에 참석한다	3	1.1
독서를 한다	2	0.8
기 타	9	3.4
계	266	100

위의 분석을 성별과 교차 분석을 한 결과 <表 3-12>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인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11.4%, 「노인정에 나간다」 26.6%,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애를 돌본다」 30.4% 순으로 많고, 여

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 132.

<表 3-12> 성별과 출석하지 않은 날의 여가상태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남	여	계
노인정에 나간다	21/7.9 26.3/26.6	59/22.2 73.8/31.6	80/30.1 100
용돈을 벌기위해서 일을 한다	9/3.4 24.3/11.4	28/10.5 75.7/15.0	37/13.9 100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 애를 돌본다	24/9.0 32.4/30.4	50/18.8 67.6/26.7	74/27.8 100
취미활동(바둑, 장기, 서예 등)을 한다	11/4.1 73.3/13.9	4/1.5 26.7/2.1	15/5.6 100
종교활동(교회, 절 등)을 한다	1/0.4 7.1/1.3	13/4.9 92.9/7.0	14/5.3 100
가족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3/1.1 30.0/3.8	7/2.6 70.0/3.7	10/3.8 100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본다	6/2.3 27.3/7.6	16/6.0 72.7/8.6	22/8.3 100
사회모임에 참석한다	2/0.8 66.7/2.5	1/0.4 33.3/0.5	3/1.1 100
독서를 한다	1/0.4 50.0/1.3	1/0.4 50.0/0.5	2/0.8 100
기 타	1/0.4 11.1/1.3	8/3.0 88.9/4.3	9/3.4 100
계	79/29.7 100	187/70.3 100	266 100
X ² = 22.23294 DF = 9 P = 0.0082			

자인 경우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15.0%,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애를 돌본다」 26.7%, 「노인정에 나간다」 31.6% 순으로 많다. 노인정에 대한 선호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정에 나가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가사일을 한다거나 하는 문항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고 다만, 취미활동이나 사회모임에 참석함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독서를 한다는 문항에서는 대동소이하고 종교활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運營從事者

(1) 運營從事者の 専門性에 대한 意見

앞서 운영종사자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영종사자의 수가 너무 적고 업무 한계가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영종사자들이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인이 아니다.

老人教育은 일반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이에 종사하는 운영종사자들은 노인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老人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表 3-13>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表 3-13> 運營從事者の 専門性에 대한 意見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	19.2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65	62.0
잘 모르겠다	19	7.1
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0	11.3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필요가 없다	1	0.4
계	266	100

노인교육 운영종사자들이 노인교육에 대해 <表 3-13>과 같이 「매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51명(19.2%),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165명(62.0%)으로 응답자 전체의 81.2%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老人教育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반

대로 「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0명(11.3%)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1명(0.4%)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전문적인 운영종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앞서의 이론부분에 거론한 것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表 3-14> 學歷과 運營從事者의 専門性에 대한 意見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필요하다	보통	필요치않다	계
무학	67/25.2	8/3.0	1/0.4	76/28.6
	88.2/31.0	10.5/42.1	1.3/3.2	100
서당	28/10.5	2/0.8	7/2.6	37/13.9
	75.7/13.0	5.4/10.5	18.9/22.6	100
초등학교 졸	69/25.9	6/2.3	10/3.8	85/32.0
	81.2/31.9	7.1/31.6	11.8/32.3	100
중학교 졸	31/11.7	2/0.8	12/4.5	45/16.9
	68.9/14.4	4.4/10.5	26.7/38.7	100
고등학교 졸	21/7.9	1/0.4	1/0.4	23/8.6
	91.3/9.7	4.3/5.3	4.3/3.2	100
계	216/81.2	19/7.1	31/11.7	266
	100	100	100	100
X ² = 22.20927 DF = 8 P = 0.0045				

학력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表 3-14>와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력마다 월등한 비율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서당,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순으로 그 필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다.

(2) 教育課程에 대한 協議 與否

교육과정은 학생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學生

들이 배우고자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학교 운영자가 教育課程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學生들의 출석률을 낮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老人들의 삶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表 3-15> 運營從事者와 意見交換 與否

구 분	인원	비율(%)
있 다	91	34.2
없 다	175	65.8
계	266	100

노인학교(대학) 운영종사자들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表 3-15>와 같이 응답자의 65.8%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34.2%만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老人教育이 학교교육이 아니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노인교육 운영종사자들은 학생들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또는 강의시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등에 관하여 파악한 후에 教育課程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성별에 따라 유의성이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表 3-16>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다」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연령과 교차분석 결과 유의성이 <表 3-17>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데, 60세 미만만이 의견교환을 해본 경우가 해보지 않는 경우보다 많고 60세에서 80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해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60-64세 사이의 노인들은 타 연령에 비해 의견교환을 해본 경우가 많고, 70-74세 사이의 노인들은 타 연령의 노인들에 비해 意見交換을 해본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6> 性別과 意見交換 與否

구분	있다	없다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남	39/14.7	40/15.0	91/34.2
	49.4/42.9	50.6/22.9	100
여	52/19.5	135/50.8	187/70.3
	27.8/57.1	72.2/77.1	100
계	91/34.2	175/65.8	266
	100	100	100
X ² = 10.53180 DF = 1 P = 0.0012			

<表 3-17> 年齡과 意見交換 與否

구분	있다	없다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60세 미만	4/1.5	2/0.8	6/2.3
	66.7/4.4	33.3/1.1	100
60 - 64세	35/13.2	46/17.3	81/30.5
	43.2/38.5	56.8/26.3	100
65 - 69세	24/9.0	42/15.8	66/24.8
	36.4/26.4	63.6/24.0	100
70 - 74세	19/7.1	54/20.3	73/27.4
	26.0/20.9	74.0/30.9	100
75 - 79세	9/3.4	24/9.0	33/12.4
	27.3/9.9	72.7/13.7	100
80세 이상	0/0.0	7/2.6	7/2.6
	0.0/0.0	100.0/4.0	100
계	91/34.2	175/65.8	266
	100	100	100
X ² = 12.37650 DF = 5 P = 0.0300			

(3) 다니는 所感

運營從事者は 老人學生이 老人學校(大學)을 다니면서 느끼는 소감을 그들

과의 상호의견 교환속에 이를 파악하여 노인학교(대학)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는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老人學校(大學)의 활성화에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老人學校(大學)을 다니며 느끼는 소감을 알아본 결과 <表 3-18>과 같이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응답이 113명(42.5%)으로 나타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인식된다. 강사의 선정은 教育內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강의자세, 강의능력과도 연관이 되는 만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는 응답이 90명(33.8%)를 차지하고 있어 강의방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강의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9명(7.1%)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교육과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16명(6.0%), 「老人大學(學校) 건물이 단독건물이면 한다」는 응답이 18명(6.8%)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그외 「입학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한다」가 6명(2.3%), 「잘 모르겠다」가 4명(1.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18> 老人學校(大學)에 다니는 所感

구 분	인원	비율(%)
강의과목을 늘려야 한다	19	7.1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16	6.0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	113	42.5
입학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한다	6	2.3
노인대학(학교) 건물이 단독건물이면 한다	18	6.8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	90	33.8
잘 모르겠다	4	1.5
계	266	100

성별과 老人學校(大學)에 다니는 소감 간에 유의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19>와 같이 正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남

자인 경우는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 20.3%, 「강의과목을 늘려야 한다」 11.4%로 그 비율이 나타났고 그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자인 경우는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 39.6%로 가장 많고 「강사선정을 잘 해야 한다」 34.8%, 「노인학교(대학)의 건물이 단독 건물이었으면 한다」 9.1%로 나타났으며 그외는 적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응답과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는 응답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순위가 서로 뒤바뀌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表 3-19> 性別과 老人學校(大學)에 다니는 所感

구 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강의과목을 늘려야 한다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	입학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한다	노인대학(학교) 건물이 단독 건물이었으면 한다	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	잘 모르겠다	
남	9/3.4 11.4/47.4	3/1.1 3.8/18.8	48/18.0 60.8/42.5	2/0.8 2.5/33.3	1/0.4 1.3/5.6	16/6.0 20.3/17.8	0/0.0 0.0/0.0	79/29.7 100
여	10/3.8 5.3/52.6	13/4.9 7.0/81.3	65/24.4 34.8/57.5	4/1.5 2.1/66.7	17/6.4 9.1/94.4	74/27.8 39.6/82.2	4/1.5 2.1/100.0	187/70.3 100
계	19/7.1 100	16/6.0 100	113/42.5 100	6/2.3 100	18/6.8 100	90/33.8 100	4/1.5 100	266 100
X ² = 25.47704 DF = 6 P = 0.0003								

다) 支援部署

(1) 行政機關의 支援 勞力 程度

노인학교(대학)의 지원부서인 행정기관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복지정책의 擔當者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나와 행정기관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노인학교(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老人學生들은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노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았다.

老人學校(大學)의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노력 정도에 대하여는 <表 3-20>과 같이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78명(29.3%),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90명(33.8%)으로 응답자의 63.1%가 긍정적인 대담을 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30명(11.3%),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4명(1.5%)순으로 응답자의 12.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에 비하여 많은 것은 道나 市郡에서 1,8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學生들이 인식하여 이러한 應答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老人學校(大學)의 운영 실태를 보면 재정적인 問題가 老人學校(大學) 운영 활성화에 최우선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表 3-20> 行政機關의 行·財政支援 勞力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78	29.3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90	33.8
그저 그렇다	64	24.1
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30	11.3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4	1.5
계	266	100

성별과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노력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表 3-21>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부정적인 응답(3.8%, 16.9%)보다는 긍정적인 應答

(64.6%, 62.6%)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 부정적인 응답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1> 性別과 行政機關의 行・財政支援 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남	51/19.2	25/9.40	3/1.1	79/29.7
	64.6/30.4	31.6/39.1	3.8/8.8	100
여	117/44.0	39/14.7	31/11.73	187/70.3
	62.6/69.6	20.9/60.9	16.6/91.2	100
계	168/63.2	64/24.1	34/12.8	266
	100	100	100	100
$X^2 = 9.81890$				DF = 2
				P = 0.0074

(2) 老人學校(大學) 活性化를 위한 條件

<표 3-22> 活性化의 條件

구 분	인원	비율(%)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161	60.5
노인복지관계 법령의 개폐	19	7.1
교육시설의 확충	6	2.3
노인대학(학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63	23.7
대학운영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5	1.9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	8	3.0
사회적명인사 및 독지가의 후원	4	1.5
계	266	100

老人學校(大學)의 活性化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는 <表 3-22>와 같이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161명(60.5%), 「노인학교(대학) 학생들

의 적극적 참여」가 63명(23.7%)으로 20%를 넘고 있고, 「노인복지관계 법령의 개폐」가 19명(7.1%),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이 8명(3.0%), 「教育施設의 擴充」이 6명(2.3%), 「대학운영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5명(1.9%), 「사회저명인사 및 독지가의 후원」이 4명(1.5%)순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응답에서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方案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支援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教育管理

가) 講師陣

(1) 講師의 講義姿勢

강사는 강의에 앞서 老人을 존경하는 姿勢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경로사상이 투철해야 한다. 이는 老人들이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강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表 3-23> 講師의 講義姿勢

구 분	인원	비율(%)
노인들을 매우 공경하는 자세이다	104	39.1
대체적으로 공경하는 자세이다	117	44.0
그저 그렇다	40	15.0
별로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5	1.9
전혀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0	0.0
계	266	100

講師陣의 강의 자세에 대해 <表 3-23>과 같이 老人學生들은 「매우 공경하는 자세이다」 104명(39.1%), 「대체적으로 공경하는 자세이다」 117명(44.0%)으로 전체의 83.1%가 「공경하는 자세」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0명(15.0%), 「별로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명(1.9%)으로 나타나 강사들 전부가 老人을 공경하는 자세를 堅持하고 있지는 않다.

(2) 講師의 講義能力

學生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 교사의 첫째 任務¹⁰²⁾인 것처럼 학교교육은 아니지만 老人學校(大學)의 강사들도 지식의 전달자로서 老人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能力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강사들의 강의능력에 대한 老人學生들의 응답은 <表 3-24>와 같다.

<表 3-24> 講師의 講義能力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흥미롭게 잘한다	86	32.3
대체적으로 흥미롭게 잘하는 편이다	96	36.1
보통이다	77	28.9
별로 흥미롭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6	2.3
매우 잘하지 못한다	1	0.4
계	266	100

「매우 흥미롭게 잘한다」가 86명(32.3%), 「대체적으로 흥미롭게 잘하는 편이다」가 96명(36.1%)으로 응답자의 68.4%가 강사의 강의능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보통이다」 77명(28.9%)까지 합치면 거의 97.3%가 강의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별

102) 김중서·이영덕·정원식, 전계서, p. 363.

로 흥미롭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6명(2.3%), 「매우 잘하지 못한다」가 1명(0.4%)으로 전체 응답자의 미미한 수준인 7명(2.7%)만이 강의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表 3-25> 性別과 講師의 講義能力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남	43/16.2	31/11.7	5/1.9	79/29.7
	54.4/23.6	39.2/40.3	6.3/71.4	100
여	139/52.3	46/17.3	2/0.8	187/70.3
	74.3/76.4	24.6/59.7	1.1/28.6	100
계	182/68.4	77/28.9	7/2.6	266
	100	100	100	100
$X^2 = 13.16591$ $DF = 2$ $P = 0.0014$				

<表 3-26> 學歷과 講師의 講義能力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무학	60/22.6	14/5.3	2/0.8	76/28.6
	78.9/33.0	18.4/18.2	2.6/28.6	100
서당	24/9.0	12/4.5	1/0.4	37/13.9
	64.9/13.2	32.4/15.6	2.7/14.3	100
초등학교 졸	60/22.6	25/9.4	0/0.0	85/32.0
	70.6/33.0	29.4/32.5	0.0/0.0	100
중학교 졸	25/9.4	19/7.1	1/0.4	45/16.9
	55.6/13.7	42.2/24.7	2.2/14.3	100
고등학교 졸	13/4.9	7/2.6	3/1.1	23/8.6
	56.5/7.1	30.4/9.1	13.0/42.9	100
계	182/68.4	77/28.9	7/2.6	266
	100	100	100	100
$X^2 = 20.49083$ $DF = 8$ $P = 0.0086$				

강사의 강의능력을 성별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25>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老人 모두가 강의능력에 대해 중립적

이기 보다는 肯定的이고 특히,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강의능력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리고 否定的인 응답에 있어서는 남자(71.4%)가 여자(28.6%)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강의능력과 학력 간에도 <表 3-26>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사의 강의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학력에 구분없이 중립적·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자가 타 졸업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응답이 적은 편이다. 강의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무학과 서당을 除外하고는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순으로 많아지고 있다.

(3) 듣고 싶은 講師

노인학교(大學)의 강사진은 교육과정과 연결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學生들의 욕구나 능력에 맞는 教育課程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교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表 3-27> 가장 듣고 싶은 講師

구 분	인원	비율(%)
대학교수	25	9.4
사회저명인사	19	7.1
노인문제전문가	53	19.9
건강관리 선생	121	45.5
관공서 기관장	5	1.9
교육계에서 정년퇴직한 선생님	17	6.4
음악·무용선생	26	9.8
계	266	100

老人學校(大學) 學生들이 강의를 듣고 싶은 강사는 <表 3-27>과 같이 「건강관리 선생」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강관리 선생」이 121명(45.5%), 「노인문제 전문가」가 53명(19.9%), 「음악·무용 선생」이 26명(9.8%), 「대학교수」가 25명(9.4%), 「사회저명인사」가 19명(7.1%), 「교육계에서 정년 퇴직한 선생님」이 17명(6.4%), 「관공서 기관장」이 5명(1.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의 특성에서 여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음악과 무용 선생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외 건강관리 선생과 노인문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老人们이 자신의 건강 증진과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강사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講義의 理解程度

강의 내용의 이해도는 <表 3-28>과 같이 강사의 강의능력 뿐만 아니라 學生들의 지적 능력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강의 이해도를 통하여 강의능력과 지적능력 파악이 동시에 이루어져 교육의 效率性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表 3-28> 講義內容 理解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전부 이해한다	19	7.1
거의 이해하는 편이다	117	44.0
보통이다	121	45.5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9	3.4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0	0.0
계	266	100

강의내용 이해정도는 「전부 이해한다」가 19명(7.1%), 「거의 이해하는 편이다」가 117명(44.0%)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1.1%에 이르고 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學生이 121명(45.5%)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 있다.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가 9명(3.4%)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내용의 이해정도는 성별에 따라 <表 3-29>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68.4%가 강의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1.3%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9%를 차지하여 「잘 이해한다」는 43.9%를 앞서고 있다. 또한 강의내용의 이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고 있으나 이해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表 3-29> 性別과 講義理解 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보통이다	부정	계
남	54/20.3	24/9.0	1/0.4	79/29.7
	68.4/39.7	30.4/19.8	1.3/11.1	100
여	82/30.8	97/36.5	8/3.0	187/70.3
	43.9/60.3	51.9/80.2	4.3/88.9	100
계	136/51.1	121/45.5	9/3.4	266
	100	100	100	100
$X^2 = 13.65123$		DF = 2	P = 0.0011	

학력과 교차분석에 있어서도 <表 3-30>과 같이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학, 서당,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中立的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과의 교차분석에 있어서도 <表 3-31>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에서 69세까지는 이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중립과 부정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나 70-80세 이상은 그 반대 현상으로 중립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미만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강의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30> 學歷과 講義理解 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무학	19/7.1	50/18.8	7/2.6	76/28.6
	25.0/14.0	65.8/41.3	9.2/77.8	100
서당	18/6.8	17/6.4	2/0.8	37/13.9
	48.6/13.2	45.9/14.0	5.4/22.2	100
초등학교 졸	41/15.4	44/16.5	0/0.0	85/32.0
	48.2/30.1	51.8/36.4	0.0/0.0	100
중학교 졸	38/14.3	7/2.6	0/0.0	45/16.9
	84.4/27.9	15.6/5.8	0.0/0.0	100
고등학교 졸	20/7.5	3/1.1	0/0.0	23/8.6
	87.0/14.7	13.0/2.5	0.0/0.0	100
계	136/51.1	121/45.5	9/3.4	266
	100	100	100	100
X ² = 60.93576 DF = 8 P = 0.0000				

<表 3-31> 年齡과 講義理解 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60세 미만	4/1.5	2/0.8	0/0.0	6/2.3
	66.7/2.9	33.3/1.7	0.0/0.0	100
60 - 64세	57/21.4	24/9.0	0/0.0	81/30.5
	70.4/41.9	29.6/19.8	0.0/0.0	100
65 - 69세	37/13.9	26/9.8	3/1.1	66/24.8
	56.1/27.2	39.4/21.5	4.5/33.3	100
70 - 74세	24/9.0	46/17.3	3/1.1	73/27.4
	32.9/17.6	63.0/38.0	4.1/33.3	100
75 - 79세	13/4.9	18/6.8	2/0.8	33/12.4
	39.4/9.6	54.5/14.9	6.1/22.2	100
80세 이상	1/0.4	5/1.9	1/0.44	7/2.6
	14.3/0.7	71.4/4.1	14.3/11.1	100
계	136/51.1	121/45.5	9/3.4	266
	100	100	100	100
X ² = 32.21713 DF = 10 P = 0.0004				

나) 敎育課程

(1) 배우고 싶은 分野

老人學校(大學)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는 <表 3-32>와 같이 「건강관리 분야」가 88명(33.1%),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가 71명(26.7%), 「취미·오락활동에 관한 분야」가 55명(20.7%), 「일반상식·교양분야」가 35명(13.2%),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분야」가 12명(4.5%), 「전문적인 지식분야」가 4명(1.5%), 「사교에 관한 분야」가 1명(0.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관리 분야」와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가 59.8%를 차지하여 건강과 노후생활에 老人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취미·오락 분야의 분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7%에 그치고 있다.

<表 3-32> 배우고 싶은 분야

구 분	인원	비율(%)
건강관리 분야	88	33.1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	71	26.7
일반상식·교양분야	35	13.2
전문적인 지식(법률,의학 등)분야	4	1.5
취미·오락활동 분야	55	20.7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분야	12	4.5
사교에 관한 분야	1	0.4
기 타	0	0.0
계	266	100

배우고 싶은 분야와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33>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인 경우는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 「건강관리에 관한 분야」 순으로 많은 데 비해 여자는 「건강관리분야」 「취미·오락활동 분야」,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 순으로 많아 남자와 여자 간에 그 선호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배우고 싶은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분야」, 「취미·오락활동 분야」, 「건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 비율이 몇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여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시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3-33> 性別과 배우고 싶은 분야

구 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건강관리 분야	노후생활 에 관한 분야	일반상식 · 교양분야	전문적인 지식(의학, 법률 등) 분야	취미·오 락활동 분 야	가정생활 문제에 관 한 분야	사회에 관한 분야	기타	계
남	21/7.9	30/11.3	14/5.3	1/0.4	12/4.5	1/0.4	0/0.0	0/0.0	79/29.7
	26.6/23.9	38.0/42.3	17.7/40.0	1.3/25.0	15.2/21.8	1.3/8.3	0.0/0.0	0.0/0.0	100
여	67/25.2	41/15.4	21/7.9	3/1.1	43/16.2	11/4.1	1/0.4	0/0.0	187/70.3
	35.8/76.1	21.9/57.7	11.2/60.0	1.6/75.0	23.0/78.2	5.9/91.7	0.5/100.0	0.0/0.0	100
계	88/33.1	71/26.7	35/13.2	4/1.5	55/20.7	12/4.5	1/0.4	0	2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 13.29832 DF = 6 P = 0.0385									

배우고 싶은 분야는 자기의 삶의 연속선 상에서 결정될 것이다. 배우고 싶은 분야는 실로 다양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재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일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삶의 기반인 직업은 배우고 싶은 분야와 밀접한 關係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表 3-34>는 직업과 배우고 싶은 분야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다. P-Value가 0.05 이상인 0.1376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학교(대학)학생들의 배우고 싶은 분야는 그들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職業의 구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表 3-34> 職業과 배우고 싶은 분야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건강관리 분야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	일반상식·교양분야	전문직인 지식(의학, 법률 등) 분야	취미·오락활동 분야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분야	사회에 관한 분야	기타	
농·수산업	42/15.8 32.1/47.7	35/13.2 26.7/49.3	20/7.5 15.3/57.1	3/1.1 2.3/75.0	23/8.6 17.6/41.8	7/2.6 5.3/58.3	1/0.4 0.8/100.0	0/0.0	131/49.2 100
개인사업	5/1.9 50.0/5.7	2/0.8 20.0/2.8	3/1.1 30.0/8.6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0/3.8 100
서비스업	6/2.3 54.5/6.8	3/1.1 27.3/4.2	1/0.4 9.1/2.9	1/0.4 9.1/25.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1/4.1 100
회사원	0/0.0 0.0/0.0	0/0.0 0.0/0.0	1/0.4 100.0/2.9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0.4 100
무직	25/9.4 26.9/28.4	28/10.5 30.1/39.4	8/3.0 8.6/22.9	0/0.0 0.0/0.0	29/10.9 31.2/52.7	3/1.1 3.2/25.0	0/0.0 0.0/0.0	0/0.0	93/35.0 100
기타	10/3.8 50.0/11.4	3/1.1 15.0/4.2	2/0.89 10.0/5.7	0/0.0 0.0/0.0	3/1.1 15.0/5.5	2/0.8 10.0/16.7	0/0.0 0.0/0.0	0/0.0	20/7.5 100
계	88/33.1 100	71/26.7 100	35/13.2 100	4/1.5 100	55/20.7 100	12/4.5 100	1/0.4 100	0	266 100
X ² = 38.49029 DF = 30 P = 0.1376									

(2) 教材

노인학교(대학)의 교재에 대한 의견에서는 <表 3-35>와 같이 「정식교과서가 있으면」이 102명(38.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오락에 필요한 악기(장고,북,피아노 등)」가 있으면 62명(23.3%), 「프린트물로 작성된 교재를 배부해 주었으면」이 59명(22.2%), 「시청각교재(TV,비디오 등)가 있으면」이 37명(13.9%), 「기타」 6명(2.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식

교과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表 3-35> 教材에 대한 意見

구 분	인원	비율(%)
정식 교과서가 있으면	102	38.4
프린트물로 작성된 교재를 배부해 주었으면	59	22.2
시청각교재(TV,비디오 등)가 있으면	37	13.9
오락에 필요한 악기(장고,북,피아노 등)가 있으면	62	23.3
기 타	6	2.3
계	266	100

<表 3-36> 性別과 教材에 대한 意見

구분	정식 교과서가 있으면	프린트물로 작성된 교재를 배부해 주었으면	시청각교재 (TV,비디오 등)가 있으면	오락에 필요한 악기(장고,북,피아노 등)가 있으면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기 타	계
남	24/9.0	27/10.2	11/4.1	17/6.4	0/0.0	79/29.7
	30.4/23.8	34.2/10.2	13.9/29.7	21.5/27.4	0.0/0.0	100
여	77/28.9	32/12.0	26/9.82	45/16.9	7/2.7	187/70.3
	41.2/76.2	17.1/54.2	13.9/70.3	24.1/72.6	3.2/100.0	100
계	101/38.0	59/22.2	37/13.9	62/23.3	6/2.7	266
	100	100	100	100	100	100
$X^2 = 12.10825$		DF = 5		P = 0.0333		

교재에 대한 의견과 성별 간에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36>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프린트로 작성된 교재를 가장 바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식교과서를 원하고 있으나 여자인 경우는 남자와는 달리 정식교과서를 가장 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락에 필요한 악기 등을 원하고 있다. 남자가 가장 원하는, 프린트로 작성된 교재에 대해서 여자들의 선호는 세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性別에 따라 교재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강의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教育内容이 自己開發 程度

老人教育이 老人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教育内容에는 당연히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教育内容이 자기개발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냐에 대한 파악은 教育課程의 개발, 강의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教育内容과 자기개발에 대한 學生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表 3-37> 教育内容과 自己開發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64	24.1
대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126	47.4
그저 그렇다	72	27.1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3	1.1
전혀 도움이 안된다	1	0.4
계	266	100

<表 3-37>은 이에 대한 學生들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데, 教育内容이 자기개발에 「아주 많이 도움을 준다」라는 응답이 64(24.1%), 「대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126명(47.4%)으로 이 두 응답을 합치면 71.5%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學生 4명(1.5%)에 비하여 훨씬 많아 教育内容이 자기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教育内容이 자기개발(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를 학력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다음의 <表 3-38>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구분 없이 응답자들 모두가 教育内容이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타 학력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자기개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8> 學歷과 自己開發 程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긍정	중립	부정	계
무학	42/15.8	32/12.0	2/0.8	76/28.6
	55.3/22.1	42.1/44.4	2.6/50.0	100
서당	27/10.2	10/3.8	0/0.0	37/13.9
	73.0/14.2	27.0/13.9	0.0/0.0	100
초등학교 졸	66/24.8	19/7.1	0/0.0	85/32.0
	77.6/34.7	22.4/26.4	0.0/0.0	100
중학교 졸	37/13.9	6/2.3	2/0.8	45/16.9
	82.2/19.5	13.3/8.3	4.4/50.0	100
고등학교 졸	18/6.8	5/1.9	0/0.0	23/8.6
	78.3/9.5	21.7/6.9	0.0/0.0	100
계	190/71.4	72/27.1	4/1.5	266
	100	100	100	100
X ² = 19.97291 DF = 8 P = 0.0104				

(4) 교시당 강의시간과 총 강의시간수

老人學校(大學)의 1교시당 강의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表 3-39>와 같이 절대 다수인 240명(90.2%)의 學生들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총강의시간수에 대한 응답 또한 다음의 <表 3-40>과 같이 절대 다수인 214명(80.5%)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表 3-39> 교시당 강의시간 정도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길다	3	1.1
긴 편이다	9	3.4
적당하다	240	90.2
짧은 편이다	14	5.3
매우 짧다	0	0.0
계	266	100

<表 3-40> 연간 총 강의시간수 정도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많은 편이다	3	1.1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17	6.4
적당하다	214	80.5
적은 편이다	26	9.8
매우 적은 편이다	6	2.3
계	266	100

(5) 講義方法

강의방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表 3-41>과 같이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이 132명(49.6%)으로 가장 많아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 63명(23.7%), 「시청 각교재(TV, 비디오 등)을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45명(16.9%),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부하는 방법」 15명(5.6%),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11명(4.1%)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선행 연구로서 대구시내 老人學校 學生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靜的인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¹⁰³⁾ 본 연구에서는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動的인 강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42>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자들은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한해서만 남자보다 덜 선호하는 것으로

103) 최진순, “노인의 사회교육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p. 38-39.

나타났다. 대구시내 老人學校 學生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교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나¹⁰⁴⁾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제주지역 老人學校 學生들은 남녀 모두가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現場中心으로 강의방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表 3-41> 講義方法에 대한 選好度

구 분	인원	비율(%)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	63	23.7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	132	49.6
시청각교재(TV,비디오 등)를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45	16.9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11	4.1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부하는 방법	15	5.6
계	266	100

<表 3-42> 性別과 講義方法에 대한 選好度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구분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	시청각교재 (TV,비디오)를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부하는 방법	계
남	18/6.8	48/18.0	4/1.5	6/2.3	3/1.1	79/29.7
	22.8/28.6	60.8/36.4	5.1/8.9	7.6/54.5	3.8/20.0	100
여	45/16.9	84/31.6	41/15.4	5/1.9	12/4.5	187/70.3
	24.1/71.4	44.9/63.6	21.9/91.1	2.7/45.5	6.4/80.0	
계	63/23.7	132/49.6	45/16.9	11/4.1	15/5.6	266
	100	100	100	100	100	100
$X^2 = 16.10859$ $DF = 4$ $P = 0.0029$						

학력과 강의방법 선호도 간에는 <表 3-43>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104) 상계논문, p. 39.

나타나고 있는 데, 무학, 서당,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업자들은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 고등학교 졸, 서당, 무학, 중학교 졸업 순으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그 이하의 졸업자보다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시청각교재(TV, 비디오 등)를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무학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중학교 이상의 고학력 졸업자가 선호하고 있다.

<表 3-43> 學歷과 講義方法 選好度

구분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	시청각교재(TV, 비디오)를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부하는 방법	계
	(count/tot pct)	(count/tot pct)	(count/tot pct)	(count/tot pct)	(count/tot pct)	(count/tot pct)
무학	9/3.4	38/14.3	19/7.1	3/1.1	7/2.6	76/28.6
	11.8/14.3	50.0/28.8	25.0/42.2	3.9/27.3	9.2/46.7	100
서당	9/3.4	21/7.9	5/1.9	1/0.4	1/0.4	37/13.9
	24.3/14.3	56.8/15.9	13.5/11.1	2.7/9.1	2.7/6.7	100
초등학교 졸	27/10.2	38/14.3	16/6.0	1/0.4	3/1.1	85/32.0
	31.8/42.9	44.7/28.8	18.8/35.6	1.2/9.1	3.5/20.0	100
중학교 졸	7/2.6	29/10.9	3/1.1	3/1.1	3/1.1	45/16.9
	15.6/11.1	64.4/22.0	6.7/6.7	6.7/27.3	6.7/20.0	100
고등학교 졸	11/4.1	6/2.3	2/0.8	3/1.1	1/0.4	23/8.6
	47.8/17.5	26.1/4.5	8.7/4.4	13.0/27.3	4.3/6.7	100
계	63/23.7	132/49.6	45/16.9	11/4.1	15/5.6	266
	100	100	100	100	100	100
$X^2 = 36.41370$		DF = 16		P = 0.0025		

이상을 대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저학력인 경우는 견학, 시청각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감각을 통

하여 외계사물을 접하는 것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리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강의가 구체성을 띠고 흥미를 유발시켜 인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고학력자인 경우는 지적 능력에 있어 저학력자들 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차원 높은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토론·토의를 통한 공부 방법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듯하다.

3) 教育環境

가) 施設

(1) 教育施設의 狀態 程度

<表 3-44> 教育施設의 狀態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노후화되어 사용하기가 어렵다	13	4.9
대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70	26.3
그저 그렇다	53	19.9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113	42.5
매우 좋은 편이다	17	6.4
계	266	100

老人學校(大學)의 教育施設 狀態에 대한 질문에서 <表 3-44>와 같이 「매우 좋은 편이다」 17명(6.4%),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113명(42.5%)으로 이 둘을 합한 48.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다」 70명(26.3%), 「아주 노후화 되어 있다」 13명(4.9%)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31.2%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저 그렇다」가 19.9%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教育施設의 狀態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부족한 施設을 보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敎育施設 상태와 성별 간에는 <表 3-45>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敎育施設 상태에 대해 남자의 경우 「좋다」라는 응답이 59.5%, 「나쁘다」라는 응답이 20.3%로 나타났고, 여자인 경우는 「좋다」라는 응답이 44.4%, 「나쁘다」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表 3-45> 性別과 敎育施設 상태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좋다	보통	나쁘다	
남	47/17.7	16/6.0	16/6.0	79/29.7
	59.5/36.2	20.3/30.2	20.3/19.3	100
여	83/31.2	37/13.9	67/25.2	187/70.3
	44.4/63.8	19.8/69.8	35.8/80.7	100
계	130/48.9	53/19.9	83/31.2	266
	100	100	100	100
X ² = 6.91816		DF = 2	P = 0.0315	

(2) 필요한 施設

老人學校(大學)에 가장 필요한 敎育施設에 대해서는 <表 3-46>과 같이 「냉방시설」 61명(22.9%), 「난방시설」 49명(18.4%), 「시청각시설」 48명(18.0%), 「책·결상 교체 및 완비」 46명(17.3%), 「휴게실」 26명(9.8%), 「강의실 확충」 18명(6.8%), 「컴퓨터 敎育施設」 13명(4.9%), 「기타」 5명(1.9%)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필요한 施設로서 냉·난방시설에 응답자의 비율(41.3%)이 많은 것은 老人들이 평상인들보다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안의 물리적 환경 즉, 온도나 습도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¹⁰⁵⁾ 강의실의 온도와 습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채실자들이 만족하는 쾌적온도 23.6-26.2℃,¹⁰⁶⁾ 습도 45-60%¹⁰⁷⁾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3-46> 필요한 施設

구 분	인원	비율(%)
책·결상 교체 및 완비	46	17.3
강의실 확충	18	6.8
냉방시설	61	22.9
난방시설	49	18.4
컴퓨터 교육시설	13	4.9
휴게실	26	9.8
시청각 시설	48	18.0
기 타	5	1.9
계	266	100

教育環境과 관련하여 조명과 조명방법을 덧붙이면, 조명은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독서에 가장 적당한 40-300룩스¹⁰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명방법은 광원으로 부터 직접 빛을 발하는 직접조명보다도 반사경을 사용해서 천정이나 벽으로부터 반사광을 이용하는 간접조명 쪽이 피로를 줄려 바람직하다. 음향도 소음이나 소리 울림을 흡수할 수 있도록 音響이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강의실의 벽, 천정, 바닥의 색깔도 학습환경에 맞도록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施設로서 책·결상 교체 및 완비, 시청각실과 휴게실 마련에 응답한 學生들이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105) 박상호·임선빈, 「최신교육공법·교육공학」, 서울, 집문당, 1993, p. 353.

106) 전성원, “노인복지시설의 쾌적온열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p. 59.

107) 상계논문, p. 45.

108) 박상호·임선빈, 전계서, p. 354.

<表 3-47> 性別과 필요한 教育施設

구분	책·결상 교체 및 완비	강의실 확충	냉방 시설	난방 시설	컴퓨터 교육시설	휴게실	시청각 시설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기타	계
남	6/2.3 7.6/13.0	1/0.4 1.3/5.6	27/10.2 34.2/44.3	15/5.6 19.0/30.6	9/3.4 11.4/69.2	7/2.6 8.9/26.9	10/3.8 12.7/20.8	4/1.5 5.1/80.0	79/29.7 100
여	40/15.0 21.4/87.0	17/6.4 9.1/94.4	34/12.8 18.2/55.7	34/12.8 18.2/69.4	4/1.5 2.1/30.8	19/7.1 10.2/73.1	37/14.3 20.3/79.2	1/0.4 0.5/20.0	187/70.3 100
계	46/17.3 100	18/6.8 100	61/22.9 100	49/18.4 100	13/4.9 100	26/9.8 100	48/18.0 100	5/1.9 100	266 100
X ² = 35.04576 DF = 7 P = 0.0000									

<表 3-48> 學歷과 필요한 教育施設

구분	책·결상 교체 및 완비	강의실 확충	냉방 시설	난방 시설	컴퓨터 교육 시설	휴게실	시청각 시설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기타	계
무학	18/6.8 23.7/39.1	11/4.1 14.5/61.1	16/6.02 21.1/26.2	4/1.5 5.3/8.2	0/0.0 0.0/0.0	6/2.3 7.9/23.1	21/7.9 27.6/43.8	0/0.0 0.0/0.0	76/28.6 100
서당	4/1.5 10.8/8.7	3/1.1 8.1/16.7	17/6.48 45.9/27.9	3/1.1 8.1/6.1	1/0.4 2.7/7.7	2/0.8 5.4/7.7	5/1.9 13.5/10.4	2/0.8 5.4/40.0	37/13.93 100
초등학 교 졸	17/6.4 20.0/37.0	3/1.1 3.5/16.7	18/6.8 21.2/29.5	21/7.9 24.7/42.9	5/1.9 5.9/38.5	9/3.4 10.6/34.6	9/3.4 10.6/18.8	3/1.1 3.5/60.0	85/32.0 100
중학교 졸	4/1.5 8.9/8.7	0/0.0 0.0/0.0	8/3.0 17.8/13.1	17/6.4 37.8/34.7	6/2.3 13.3/16.2	2/0.8 4.4/7.7	8/3.0 17.8/16.7	0/0.0 0.0/0.0	45/16.9 100
고등학 교 졸	3/1.1 13.0/6.5	1/0.4 4.3/5.6	2/0.8 8.7/3.3	4/1.5 17.4/8.2	1/0.4 4.3/7.7	7/2.6 30.4/26.9	5/1.9 21.7/10.4	0/0.0 0.0/0.0	23/8.6 100
계	46/17.3 100	18/6.8 100	61/22.9 100	49/18.4 100	13/4.9 100	26/9.8 100	48/18.0 100	5/1.9 100	266 100
X ² = 84.76841 DF = 28 P = 0.0000									

<表 3-47>은 필요한 教育施設과 성별 간에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는 필요한 教育施設로서 「냉방시설」(34.2%)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난방시설」(19.0%), 「시청각실」(12.7%) 등 순이다. 여자는 「책·결상 교체 및 완비」(21.4%)를 제1 우선순위로 해서 「시청각실」(20.3%), 「냉·난방시설」(18.2%, 18.2%), 「휴게실」 등의 순이다. 여자는 「컴퓨터시설」(69.2%)을 제외한 다른 모든 施設에 대해 남자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認識하고 있다.

학력에 따라 필요한 教育施設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다음의 <表 3-48>과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필요한 施設을 무학자는 시청각실과 책·결상 교체 및 완비 순으로, 서당에서 공부한 學生은 난방시설과 시청각실 순으로, 초등학교 졸업자는 난방시설과 책상, 결상 교체 및 완비 순으로, 중학교 졸업자는 난방시설과 시청각 시설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휴게실과 시청각 시설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시청각실을 필요한 教育施設로 인식하고 있음을 직관에 의한 교육이라는 차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休息空間의 程度

휴식공간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또는 學生들끼리 담소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表 3-49> 休息空間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넓다	12	4.5
대체적으로 넓은 편이다	133	50.0
그저 그렇다	72	27.1
좁은 편이다	23	8.6
전혀 없다	26	9.8
계	266	100

휴식공간 정도에 대하여는 <表 3-49>와 같이 「매우 넓다」라는 응답이

12명(4.5%), 「대체적으로 넓은 편이다」 133명(50.0%)으로 「넓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좁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23명(8.6%)이고 「전혀 없다」라는 응답도 26명(9.8%)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財政

(1) 運營費 確保 方法

<表 3-50> 運營費 確保 方法

구 분	인원	비율(%)
행정기관에 요청	193	72.6
지역사회유지 및 독지가의 후원금 요청	36	13.5
노인회 스스로 조달	23	8.6
재학생 스스로 조달	7	2.6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금 요청	4	1.5
기 타	3	1.1
계	266	100

老人學校(大學)의 운영비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表 3-50>과 같이 「행정기관에 요청한다」가 193명(72.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유지 및 독지에게 후원금을 요청한다」가 36명(13.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老人會 스스로 조달」 23명(8.6%), 「재학생 스스로 조달」 7명(2.6%),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금 요청」 4명(1.5%)순이다.

결국 老人學校(大學)의 學生들은 학교 운영비 확보방법의 하나로 행정기관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 老人教育이 노인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인 만큼 국민복지의 담당자인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예산의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學生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

하고 정부에만 의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寄附金 納付 用意

<表 3-51> 寄附金 納付 用意 與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그렇다	33	12.4
대체적으로 그렇다	76	28.6
잘 모르겠다	85	32.0
거의 없다	51	19.2
전혀 없다	21	7.9
계	266	100

老人大學(學校) 운영을 위해 기부금 납부 용의에 대하여는 <表 3-51>과 같이 「아주 그렇다」 33명(12.4%), 「대체적으로 그렇다」 76명(28.6%)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41.0%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없다」 51명(19.2%), 「전혀 없다」 21명(7.9%)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어 기부금 납부 용의에 대한 學生들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부금 납부 용의와 학력을 교차분석 한 결과 <表 3-52>와 같이 유의하다. 무학,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가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반면 서당에서 공부한 老人은 부정적인 응답이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는 중립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저학력일수록 기부금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정도와 기부금 납부 용의 여부에 대해 교차분석 결과 <表 3-53>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매우 부유하다고 응답한 學生들이 기부금 납부에 대해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부유하다고 반드시 그 용의가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상을 제외하고는

생활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기부금 납부의 용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表 3-52> 學歷과 寄附金 納付 用意 與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납부하겠다	모르겠다	납부않겠다	
무학	28/10.5	21/7.9	27/10.2	76/28.6
	36.8/25.7	27.6/24.7	35.5/37.5	100
서당	14/5.3	7/2.6	16/6.0	37/13.9
	37.8/12.8	18.9/8.2	43.2/22.2	100
초등학교 졸	36/13.5	38/14.3	11/4.1	85/32.0
	42.4/33.0	44.7/44.7	12.9/15.3	100
중학교 졸	17/6.4	12/4.5	16/6.0	45/16.9
	37.8/15.6	26.7/14.1	35.6/22.2	100
고등학교 졸	14/5.3	7/2.6	2/0.8	23/8.6
	60.9/12.8	30.4/8.2	8.7/2.8	100
계	109/41.0	85/32.0	72/27.1	266
	100	100	100	100
X ² = 25.84433 DF = 8 P = 0.0011				

<表 3-53> 生活程度와 寄附金 納付用意 與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납부하겠다	모르겠다	납부않겠다	
매우 부유하다	2/0.8	3/1.1	0/0.0	5/1.9
	40.0/1.8	60.0/3.5	0.0/0.0	100
부유하다	4/1.5	2/0.8	0/0.0	6/2.3
	66.7/3.7	33.3/2.4	0.0/0.0	100
보통이다	97/36.5	67/25.2	48/18.0	212/79.7
	45.8/89.0	31.6/78.8	22.6/66.7	100
어려운편이다	5/1.9	12/4.5	23/8.6	40/15.0
	12.5/4.6	30.0/14.1	57.5/31.9	100
매우 어려운 편이다	1/0.4	1/0.4	1/0.4	3/1.1
	33.3/0.9	33.3/1.2	33.3/1.4	100
계	109/41.0	85/32.0	72/27.1	266
	100	100	100	100
X ² = 29.64068 DF = 8 P = 0.0002				

(3) 運營從事者의 豫算確保 勞力 程度

老人學校(大學) 운영종사자들의 예산확보 노력정도는 <表 3-54>와 같이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가 106명(39.8%),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가 86명(32.3%), 「그저 그렇다」가 55명(20.7%), 「노력하지 않은 편이다」가 13명(4.9%),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6명(2.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종사자가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2.1%로 절대적으로 많아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이들의 노력이 기대된다.

<表 3-54> 運營從事者의 豫算確保 勞力 程度

구 분	인원	비율(%)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106	39.8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86	32.3
그저 그렇다	55	20.7
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13	4.9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6	2.3
계	266	100

(4) 老人學校(大學)運營에 참여 여부

老人學校(大學)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등이 선결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老人學校(大學)을 실질적으로 다녔던 學生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이들이 교육 경험을 통하여 老人學校(大學)의 여러 분야의 실정을 잘 理解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참여는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財政 지원 등 다양한 領域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교(대학)운영종사자들은 이러한 점을 認識하여 이들의 결집력을 추구할 수 있는 동창회 등을 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운영참여는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

식하면서 참여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表 3-55>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表 3-55> 運營參與 與否

구 분	인원	비율(%)
매우 원한다	101	38.0
대체적으로 원하는 편이다	112	42.1
잘 모르겠다	46	17.3
거의 원하지 않는다	4	1.5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1.1
계	266	100

<表 3-56> 生活程度와 運營參與 與否

구분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계
	참가하겠다	모르겠다	참가않겠다	
매우 부유하다	1/0.4	4/1.5	0/0.0	5/1.9
	20.0/0.5	80.0/8.7	0.0/0.0	100
부유하다	6/2.3	0/0.0	0/0.0	6/2.3
	100.0/2.8	0.0/0.0	0.0/0.0	100
보통이다	175/65.8	31/11.7	6/2.3	212/79.7
	82.5/82.2	14.6/67.4	2.8/85.7	100
어려운편이다	29/10.9	10/3.8	1/0.4	40/15.0
	72.5/13.6	25.0/21.7	2.5/14.3	100
매우 어려운 편이다	2/0.8	1/0.4	0/0.0	3/1.1
	66.7/0.9	33.3/2.2	0.0/0.0	100
계	213/80.1	46/17.3	7/2.6	266
	100	100	100	100
$X^2 = 18.57069$		DF = 8	P = 0.0173	

老人學校(大學)운영에 본인 스스로 또는 졸업한 學生들의 모임(동창회) 등을 통하여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원한다」 101명(38.0%), 「대체적으로 원하는 편이다」 112명(42.1%)이 응답하므로써 전체 응답자의

80.1%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응답을 보면 「거의 원하지 않는다」 4명(1.5%), 「전혀 원하지 않는다」 3명(1.1%)순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활정도와 운영참여 여부 간에 유의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을 한 결과 <表 3-56>과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정도에 구분 없이 「참가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다.

다. 認知度

老人學校(大學)에 대한 인지는 <表 3-57>과 같이 「주변사람의 소개」가 101명(38.0%), 「노인회원의 소개」가 93명(35.0%)으로 전체 응답자의 73%가 주변사람과 노인회원의 소개로 노인학교(대학)을 인지하여 입학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찾아서」가 응답자의 24.1%(64명)을 차지하고 있어老人们이 老人學校(大學)에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신문, TV 등을 보고」가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스컴을 통한 老人學校(大學)에 대한 弘報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소개」가 3명(1.1%)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홍보책자나 안내문을 보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학교(대학)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록매체가 작성·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석을 성별과 교차분석하면 <表 3-58>과 같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인 경우 「주변사람의 소개」(38.0%), 「자기 스스로 찾아서」(36.7%), 「노인회원의 소개」(24.1%) 순이고, 여자인 경우는 「노인회원의 소개」(39.6%), 「주변사람의 소개」(38.0%), 「자기 스스로 찾아서」(18.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 답항에 대하여 남녀 간에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각 답항에서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 3-57> 老人學校(大學) 認知度

구 분	인원	비율(%)
신문, TV 등을 보고	5	1.9
주변사람의 소개	101	38.0
자기 스스로 찾아서	64	24.1
노인회원의 소개	93	35.0
홍보책자, 안내문을 보고	0	0.0
공무원의 소개	3	1.1
계	266	100

<表 3-58> 性別과 認知度

		(count/tot pct) (row pct/col pct)					
구 분	신문,TV 등을 보고	주변사람의 소개	자기스스로 찾아서	노인회원의 소개	홍보책자,안내문을 보고	공무원의 소개	계
남	1/0.4	30/11.3	29/10.9	19/7.1	0/0.0	0/0.0	79/29.7
	1.3/20.0	38.0/29.7	36.7/45.3	24.1/20.4	0.0/0.0	0.0/0.0	100
여	4/1.5	71/26.7	35/13.2	74/27.8	0/0.0	3/1.1	187/70.3
	2.1/80.0	38.0/70.3	18.7/54.7	39.6/79.6	0.0/0.0	1.6/79.6	
계	5/1.9	101/38.0	64/24.1	93/35.0	0/0.0	3/1.1	2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 12.79207		DF = 4		P = 0.0123			

第 4 章 老人教育의 問題點 및 活性化 方案

第 1 節 問題點

1. 教育主體의 問題點

가. 教育關係者의 非專門性 및 그 人員 不足

1) 運營從事者

앞서 老人教育의 現狀 分析에서 살펴본 것처럼 老人教育에 관한 専門성을 갖춘 運營종사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専門가의 수적 부족 또는 보수 등이 적어 기피하는 현상 등이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専門가의 채용을 義務化하지 않아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 보다는 老人教育 기관에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専門가들이 없다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老人教育은 그 효율성을 極大化하지 못하여 老人教育에 관한 정책개발에 있어 참신성이 배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 작성이 주먹구구식이 되거나, 현실을 답습하는 현상이 도출되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運營從事者들의 인원이 부족하다. 도나 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총무나 교무주임 혼자서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이는 실정이며 몇 군데 노인학교에서는 담당자들이 노인회 지회 업무를 중복하여 맡은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인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노인학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노인교육이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노인교육에 관한 전문인으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2) 老人教育 擔當 公務員

老人學校(大學)運營從事者들의 비전문성과 함께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운영종사자들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의 缺如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여는 또한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다는 점, 담당자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원 보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나. 學生 參與의 不振

노인교육은 많은 學生들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의 조사에 의하면 老人學校(大學)에 다닌 경험이 응답자 267명 중에 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¹⁰⁹⁾을 보더라도 지역의 노인들 수에 비하면 參與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100명을 넘는 老人學校(大學)가 없다. 그리고 남자의 참여 비율이 너무나 적고 고학력자의 참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老人學校(大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노인들이 老人學校(大學)을 알지 못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지만 教育課程 편성의 문제점, 시설부족 등도 그 원인이다. 또한 고학력자들이 老人學校(大學)에 편견적인 사고, 즉 저학력자들만이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이 참여를 막는 원인이기도 하다.

2. 教育管理의 問題點

가. 教育課程 運營의 未熟

109)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p. 198.

教育課程의 운영은 노인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목선정이 적절하게 編成되어야 하고 강의방법 또한 다양하게 採擇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老人學校(大學) 教育課程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科目選定の 不在

앞서 분석에 의하면 老人學生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각 老人學校(大學)의 과목에 건강관리 과목이 있으나 이는 시간 배정에 있어 다른 과목과 비슷하다. 그리고 정신적·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과목들이 거의 없고 社會奉仕活動에 대한 과목 또한 없다. 따라서 老人學生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教育課程에 대해 老人學生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教育課程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짐작케 한다.

2) 講義方法의 偏重

노인교육이 대체적으로 강의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법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견학, 시찰, 관광 등이 교육내용에서 자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데,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강의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예산부족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지만 學生들로 하여금 豫算을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토론식 교육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學生들 간에 다양한 意見交換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나. 講師의 非專門性

노인교육은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야 한다. 이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노인의 적응력에 대한 판단 등이 老人教育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인교육 현황에 의하면, 교육을 노인학교(대학) 운영종사자와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한 강사들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들에 의한 강의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전문 강사들에 의한 교육은 교양을 넓히거나 사회의 다양한 지식의 흡수에 한정되어 노인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의사나 한의사 등에 의한 건강에 대한 강의 정도가 노인들의 관심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듯하다.

3. 教育環境의 問題點

가. 運營費 不足

老人學校(大學)의 운영비는 과거에 비하여 별로 나아진 점이 없다. 이는 교육수요에 비하여 항상 모자란 실정이다. 이에 따라 老人學校(大學)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외에 教育課程 운영에 있어 강사의 선정, 교육방법의 채택 뿐만 아니라 교육참여의 활성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이를 支援하는 團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주체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기관은 복지정책의 담당자로서 老人學校(大學) 운영에 필요한 만큼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주 적은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노인학교의 종사자와 면접 결과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강사의 선정이나 사무실 운영비 조차 해결할 수 없

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老人學生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운영비의 확보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지원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행정기관의 지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인교육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 부족 등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에 의존하는 경향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인학교(대학) 자체 운영비 확보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부족, 투자에 대한 결과의 불투명 등으로 그 방안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教育需要가 점점 많아 질것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提高시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方案 樹立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教育施設 不足

濟州道 老人學校(大學)의 施設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앞서 濟州道 노인교육현황에서 그 施設의 내용을 살펴 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건물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강의실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고 교육에 기본적인 도구인 책상, 의자 등도 賃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 시청각교재나 레크레이션교재인 경우는 거의 시설 자체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TV나 장구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표 3-46>에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이 냉·난방 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육여건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다.

第 2 節 活性化 方案

1. 教育主體의 活性化 方案

가. 教育參與의 極大化

교육참여는 老人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고 이들이 강의에 잘 출석하도록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변사람의 소개로 인한 입학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老人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의 소개에 의하여 參與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홍보보다는 주의사람이라는 소수에 의하여 제한되는 소개에 의하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老人教育에 참여하는 老人들이 제한됨으로써 교육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법이 있다. 老人學校(大學)의 관계자들이 노인학교(대학)의 현황, 교육과정, 강사진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배포함으로써 노인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노인학교(대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포는 반상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老人이 있는 가구를 파악하여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으며 가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방법도 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는 매스컴을 통한 弘報이다. 이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많지만 福祉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언론사와의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老人學生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과 함께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教育內容을 정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외에 강의 실이나 휴게실의 충분한 공간확보, 교육자재의 완비 등이 출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여 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運營從事者の 専門性 提高

노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 조건들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運營從事者の 전문성을 提高시키는 것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이다. 앞서 노인교육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전문인이 없다는 사실은 이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老人教育에 대한 전문성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老人教育 전문인을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 이를 採用하는 方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어려우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職員들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취득하도록 장려하거나, 아니면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老人教育 擔當 公務員의 充員과 専門化

濟州道の 경우 老人教育을 지원하는 부서는 노인학교 담당 행정부서 현황에서 보여 주듯이 제주도와 제주시는 노인복지계, 서귀포시는 가정복지계, 북제주군은 가정복지계, 남제주군은 노인복지계, 동사무소는 시민계, 읍사무소는 社會係, 면은 복지계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부서의 명도 다르고 부서마다 일반 행정직 또는 별정직 직원 한사람이 노인교육 업무를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맡고 있다.

따라서 老人教育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충원·배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은 꼭 그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군·읍·면·동마다 노인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를 배치하기

의례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 강사를 통하여 老人學生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므로써 老人學生들이 서당교실과 충효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노인의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제주인의 정체감(identity)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表 4-1> '95년도 제주지역 충효·한문교실 운영상황

지역별	구분	교실수	학습인원	운영기간	비고
제주시	하계	8	489	'95. 7 - 8월	
	동계	2	167	'95.12 - '96.12월	
서귀포시	하계	6	240	'95. 7 - 8월	
	동계	6	250	'95.12 - '96.12월	
남제주군	하계	9	488	'95. 7 - 8월	
	동계	3	140	'95.12 - '96.12월	
북제주군	하계	11	573	'95. 7 - 8월	
	동계	15	549	'95.12 - '96.12월	
계	하계	34	1,790	'95. 7 - 8월	
	동계	26	1,106	'95.12 - '96.12월	
합계		60	2,896		

자료 : 제주도 가정복지과, 1995.

4) 現場見學 또는 老人캠프 教育

이 교육은 추상적인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학습활동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현장 견학시는 방문하는 곳의 내용을 사전에 교육하여 현장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견학시 산업시찰을 병행하면 노인들을 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낼 수 있고 재취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스스로도 복지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배치를 원하고 있으며, 현직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저조하다¹¹⁰⁾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공무원 충원과 그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老人教育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¹¹¹⁾에 의하면 社會福祉政策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주거보호 등 각종 업무를 분담 관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문화하고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老人教育도 이 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教育管理의 活性化 方案

가. 教育內容과 그 方法의 多樣化

1) 健康管理 教育의 提高

老人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단연코 건강관리이다. 이는 앞서 분석의 경우에서도 이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1년도 연령별 死因을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우 “폐순환 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 65세 이상은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¹²⁾ 이러한 질병의

110) 박경춘, “노인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3, pp. 146-154.

111)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 제주도, 1994, p. 362.

112) 한국사회보건연구원,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p. 103.

현실에도 불구하고 老人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老人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¹¹³⁾ 이러한 현상은 濟州道の 老人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老人敎育은 老人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도록 하고 총강의 시간수의 30% 정도를 건강관리 강의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차원에서 요가, 단학 등에 관한 강의를 교육시간에 배정되어야 한다.

老人의 건강문제는 신체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건강도 육체적 건강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육체적 건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도 또한 주의할 사항이다. 老人들의 정신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와 역할 상실에 대한 소외감, 고독감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특성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삶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는 집단이 삶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적다는 사실¹¹⁴⁾을 의미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思考方式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그 한 예로써 노인학교(대학)에 정신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심리극 등 정신건강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전공교수를 초빙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강의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의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精神的·社會的 葛藤解消를 위한 敎育 提高

113) 상계서, p. 95.

114) 김대복,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p. 36.

老人的 갈등을 정신적·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해 본다면 정신적 갈등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갈등은 나이에 따른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敎育內容에 노인학생들 간의 격의 없는 대화, 지역내 부녀회·청년회와 대화,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敎育방법을 시행해 볼 만하다.

가) 老人學生 간의 對話

변화하는 사회에서 老人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정보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老人敎育이 갖는 크나큰 장점¹¹⁵⁾이다. 이러한 敎育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양, 그리고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老人들이 모여 가정과 사회에 대한 문제에 격의 없는 對話와 討論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그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나) 婦女會·青年會와 對話

老人들은 경제적 상실로 인한 갈등, 가정 내 고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나 시각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강의내용에 부녀회 및 청년회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機會를 만들어야 한다.

다) 靑少年과 對話

115) 김성순, 『노인복지학』, 서울, 이우출판사, 1985, p. 390.

老人學生들과 청소년들과는 어느 세대 보다도 서로 간의 갈등이 상당히 넓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의 장을 통하여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노인들은 인생의 대선배이고 청장년을 보내면서 후손들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오늘의 삶을 누리고 있고 결국 은혜자임을 강조하여 충효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老人學生들은 청소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이상을 높이고 건강한 모습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서로의 이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3)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教育 時間 確保

자원봉사활동은 환경보호운동, 교통정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서 老人學校(大學)의 教育課程에는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教育課程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敬老堂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당교실과 충효교실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教育內容이 教育課程에 개설되어야 한다.

서당교실과 충효교실은 아래의 <表 4-1>과 같이 주로 敬老堂에서 지역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효·한문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教育內容은 예절교육, 한문, 서예, 향토사, 가정의례 등이며 특히, 남제주군 동남敬老堂에서는 기초영어 교육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 충효·한문교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자부심과 여가 시간 활용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수에 비하여 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부족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老人學校(大學)學生들이 이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고, 부족한 선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老人學校(大學)의 教育課程에 예절교육, 한문, 서예, 향토사, 가정

특히, 제주도 고유의 여가활동에는 건불임(濟州語辭典 : 시원한 바람을 맞음)이라는 것이 있다. 제주도의 조상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울적할 때, 건불임을 잘했다. 이 건불임은 현대의 관광이나 여행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건불임의 철학을 현장견학과 連繫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敬老堂 프로그램과 連繫속에서 教育内容 作成

노인학교(대학)의 교육과정은 경로당 프로그램과 상호연관 속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노인대학, 노인학교 운영이 老人會가 주체가 되어 주관·운영되고 있고, 敬老堂 활동 역시 老人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教育内容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1995년도 敬老堂 운영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敬老堂 주례회의, 건강상담(인근의 보건소 활용), 지역유지와 간담회, 생활정보제공(노인취업, 주택정보,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인건강진단 등), 老人福祉相談(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관 활용), 체육활동, 오락활동, 자원봉사활동(자연보호캠페인, 교통정리, 청소년선도 등) 등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老人學校(大學)의 教育課程과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老人學校(大學)에 출석하지 않는 날에는 敬老堂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老人學生들이 敬老堂 운영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老人學校(大學)의 教育内容 작성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敬老堂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教育内容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전문지식의 습득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나. 專門講師의 確保

설문조사 분석 결과 老人들이 가장듣고 싶은 강사의 순위도는 <表 3-27>

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배우고 싶은 분야 또한 <表 3-3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老人學生들이 가장 듣고 싶은 강사는 건강관리 선생이며, 가장 듣고싶은 분야도 건강관리 분야로 건강문제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듣고 싶은 강사는 노인문제 전문가이며, 듣고 싶은 분야는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로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학년도 濟州道 지역 老人學校(大學)의 講師陣 구성은 <表 4-2>와 같다. 1년동안 출강했던 講師陣은 총127명(학교마다 출강하는 강사가 있어 중복된 인원임)이다. 老人學校(大學) 운영종사자의 강사가 19.7%으로 가장 많고, 老人學生들이 바라는 건강관리 분야의 강사로서 의사가 10명(7.9%), 약사가 3명(2.4%)으로 여섯번째와 아홉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현직 교육공무원 23명(18.1%), 기관장 15명(1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을 듣고 싶어하는 강사를 나타내는 <表 3-27>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1995년도 講師陣 구성은 老人學生들이 바라는 講師陣 구성과는 거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老人學校(大學)에 다니시는 소감에 대한 질문에 노인들이 「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學生이 113명(42.5%)이라는 데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지역의 老人學校(大學)에 출강하는 講師陣는 老人教育에 전문성이 없는 지역내 기관장, 은퇴한 교육공무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교육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재간은 각 老人學校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의 유형¹¹⁶⁾을 첫째는 상당한 강사료를 지불하고 교수나 특정문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공무원이나 지역사회 유자들을 초빙하여 무료강의를 듣는 경우이며, 셋째는 老人學校의 운영책임자들이 단독으로 연중 강의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學生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만한 적

116)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1979, pp. 65-70.

임자를 구하기 힘들고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함에 있어 일정한 강사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老人學校 중에는 그러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점은 제주도 노인학교(대학) 강사진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老人學校(大學)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여 講師陣은 대학에서 교육학, 사회교육학, 상담심리, 노인복지를 전공하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老人教育을 통한 老人福祉 증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表 4-2> '95학년도 老人學校(大學) 講師陣 現況

순위	구 분	인원	비율(%)
1	노인학교(대학) 운영 종사자	25	19.7
2	전·현직 교육공무원	23	18.1
3	기관장	15	11.8
4	생활체육강사	15	11.8
5	전·현직 행정공무원	10	7.9
6	의사	10	7.9
7	단체장	9	7.1
8	의회의원	5	3.9
9	약사	3	2.4
10	기타(교수, 언론인, 전문가, 농·수산업, 국회의원 등)	12	9.4
계		127명	100

자료 : 제주도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지부, 대한노인회 북·남제주군지회.

3. 教育環境의 活性化 方案

가. 運營費 確保 方案

濟州道 지역의 老人學校(大學)은 <表 3·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老人學校(大學)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도에 따라 다른 老人學校(大學)와는 달리 중액 지원받는 곳도 있다. 老人學校(大學) 자체적으로 豫算을 확보하는 곳은 없고, 수혜자의 부담도 전혀 없다.

老人學校(大學)의 운영비 대부분은 강사초빙료와 사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운영자와의 면접결과 파악되었다. 운영비가 넉넉치 못하므로 좋은 강사를 초빙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후원회 조직 결성과 수혜자의 수업료 납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老人學校(大學) 後援會 組織 結成

老人學校(大學)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후원회 결성은 교육운영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내 기관장, 단체장, 독지가 등을 상대로 활발한 교섭 활동을 통하여 노인학교(대학)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후원회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회가 결성되면 한꺼번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능력에 맞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授業料 納付

무료교육을 유료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안되도록 아주 저렴한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재정 확보라는 차원도 있지만 피교육자들이 당당히 수업료를 납부하여 교육을 받는 만큼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겠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노인學校(大學)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行政機關의 財政支援 擴大

앞서 분석 결과 노인學生들은 운영비 확보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운영 종사자들은 정책입안자들과 다양한 교섭 채널을 유지하여 지원 예산를 증액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노인學校가 타 학교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사례를 거울삼아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수에 비례하여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확보를 위하여 학생수를 늘리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교육수요에 비례하는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은 특히 노인학교(대학)의 시설물이나 교육자재 등의 개선이나 확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설물이나 교육자재들을 무상임대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 敎育課程에 준하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敎育施設의 擴充 方案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會館들이 노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노인敎育을 위한 강의실은 단독건물을 지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老人會館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老人學校(大學)의 강의실 규모는 대정 老人學校를 제외하고는 20-40평 정도로 강의를 위한 공간으로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강의실 규모에 따라 입학 학생수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책·결상, 시청각교재 그리고 레크레이션 교재 등이 자체소유로 확보되어야 하고 냉·난방시설 또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教育施設의 확충은 재정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정책입안자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老人教育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독지가의 방문, 공동작업장 참여를 통한 財政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地域 大學에서 公開講座 運營

대학의 강의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老人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학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개강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는 점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강사 선정, 교육방법에 신중을 기하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주1회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第 5 章 要約 및 提言

老人福祉 증진을 위한 老人教育은 老人學校(大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濟州道의 교육기관은 14개소이고 이중에 大韓老人會 산하는 1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老人學校(大學)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정부족으로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施設 또한 낙후한 형편이다.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교육의 주체를 담당하여 운영의 난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教育課程이 진부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 점을 인식하여 대한로인회 산하 도연합회와 시·군 지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대학)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老人教育의 중요성,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육원리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을 근거로 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세워 상위변수와 함께 하위변수를 모색하였다. 이에 준하여 조사내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를 통하여 대한로인회 산하 5개 노인학교(대학)재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266명에 대한 유효설문지를 얻었다.

분석은 X^2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단순분석과 함께 일반사항과 각 문항 간에 한정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學生에 관한 사항 : 노인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출석을 잘하는 편이고 특히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老人들의 출석률이 높다. 그리고 노인학교(대학)에 출석하지 않은 날에는 대체적으로 敬老堂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 運營從事者 : 노인학생들은 운영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

기를 바라고 있으며,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또한 바라고 있다. 그리고 運營從事者들은 教育課程 운영에 있어서 學生들과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3. 支援部署 :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노력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노인학교(대학) 활성화의 조건으로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들고 있다.

4. 講師陣 : 講師陣들의 강의자세는 老人들을 공경하는 자세이고, 강의능력은 긍정적이다.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자가 타 학력에 비하여 긍정적이다. 가장듣고 싶은 강사의 강의는 건강관리 선생이고, 강의는 대다수가 잘 이해하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강의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教育課程 : 노인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는 건강관리 분야, 노후생활에 관한 분야이고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건강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재는 정식교과서를 원하고 있으며 교시당 강의시간과 총강의 시간수는 적당하다. 교육은 老人들의 자기개발에 대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견학·시찰·관광을 통한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학력자일수록 토론과 토의를 통한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6. 施設 :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필요한 시설로서 냉·난방시설을 우선으로 들고 있다. 휴식공간은 대체적으로 넓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7. 財政 : 교육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기부금을 납부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정도가 부유함에 따라 그 용의가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노인학교(대학) 운영종사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후 노인학교 동창회를 통하여 노인학교(대학)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다.

8. 認知度 : 노인학생들은 주변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노인학교(대학)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신문, TV를 보거나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교육참여의 極大化이다. 교육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스컴이나 반사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출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教育內容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이다.

노인학교(대학)의 운영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전문인을 두도록 의무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老人教育 담당공무원의 충원과 전문화이다. 老人教育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충원·배치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계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老人教育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노인복지사무소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네째, 教育內容과 그 방법의 다양화이다. 老人學生들의 신체적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한 教育內容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외에 정신건강상담소 등을 노인학교(대학)에 설치하여 정신과의사 등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신적·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老人學生 간의 대화 즉 부녀회·청년회, 청소년과 대화의 시간을 교육 시간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좁히는데 유용하다. 또한 제주지역의 한문교실·충효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인학교(대학) 교육과정에 이를 위한 教育內容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견학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법을 택하고 敬老堂과 教育內容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敬老堂의 教育內容과 연계하여 教育課程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할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준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전문강사의 확보이다. 노인학교(대학)의 강사진은 대학에서 교육학, 사회교육학, 상담심리, 노인복지를 전공하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敎育施設의 확충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施設이나 敎育자재 중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고 그외 냉·난방 施設, 시청각교재 등의 기자재는 예산을 확보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인학교(대학)운영비 확보이다. 지역 내의 機關長, 地域有志, 篤志家 등으로 구성되는 노인학교(대학)후원회를 결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老人學生들로 하여금 약간의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입안자들과 적극적인 교섭이 필요하다.

여덟째, 地域 大學에서 公開講座 운영이다. 老人들을 대상으로 公開講座를 地域大學에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老人敎育의 活性化는 老人敎育의 운영주체자, 地方自治團體의 責任만이 아니라 社會共同體의 責任이라는 連帶意識 속에 관심을 가질 때 이룩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單行本

- 권이종,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1992.
- 김계삼, 노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1983.
- 김상규,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76.
- 김상규·윤 욱·김재일, 사회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3.
-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0.
- 김종서·이영덕·정원식, 최신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 김해동·정홍익, 사회행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8.
- 박노열, 사회교육방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 박상호·임선빈, 최신교육공법·교육공학, 서울, 집문당, 1993.
-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1979.
- 박태용, 노인복지연구,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90.
-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1.
- 신섭중,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3.
- 윤 진,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 이계탁, 복지행정론, 서울, 고려원, 1983.
- 이규환, 지역사회와 교육, 서울, 삼일당, 1982.
- 이연섭,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노인교육, 서울, 지역사회후원회, 1981.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대운출판사, 1985.
- 정길수 외, 사회학개론, 서울, 학문사, 1982.
- 제주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 제주, 제주도, 1996.

- 최경석·송정부, 현대노인복지정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1984.
- ,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1993.
- 한국노인복지회, 노인복지연구, 서울, 홍익제, 198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 노인정(경로당)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한국주택협회, 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주택협회, 1993.
- 한준상, 교육사회학 이론과 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1985.
- 한창영, 경노사상과 노인복지, 제주, 한일문화사, 1983.
- , 미국노년학, 제주, 신아문화사, 1990.
- , 留美漫筆, 제주, 신아문화사, 1990.
-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2) 論文

- 권찬오,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본 노인교육의 실태와 그 효율적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고범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김계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2.
- 김대복,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김동일, “근대화와 노인문제”, 한국노인학, 제1권, 한국노인학회, 1980.
- 김성균, “한국노인교육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1990.
- 김순희, “노인대학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김용현, “노인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노인생활, 7·8월호, 1984.
- 김중서, “노인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세미나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4.
- 김찬란, “노인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 박경춘, “노인복지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3.
- 박의련·유영주,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1989.
- 박재간,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그 현주소”, 「국회보」, 7월호, 서울, 국회사무처, 1992.
- 박현숙,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이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3.
- 서경덕, “한국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노인복지연구소, 1978.
-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1989.
- 송권우, “한국노인복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0.
- 송효석,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 심정택, “퇴직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제20집, 동아대학교, 1993.
- 윤명선,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1989.
- 윤진, “노인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에 관한

- 연구세미나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4.
- 윤현희,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 이장춘, “한국의 복지관광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5.
- 이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 이옥재, “한국 도시노인에 관한 연구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 이운정,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 장영미, “평생교육이론에 비추어 본 참여유형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전성원, “노인복지시설의 쾌적온열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 최진순, “노인의 사회교육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최정혜,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4호, 1990.
- 최정호, “도시문화”, 도시문제, 9월호, 1983.
- 하순옥, “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 한정란, “우리나라 노인교육 가능성과 새로운 자리매김”, 아산(계간), 춘계호, 통권 제66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5.
- 한장영, “한국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9.
- , “노인의 개념 규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31집, 제주대학교, 1990.

- ,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32집, 제주대학교, 1991.
- , “노년과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집,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2.
- , “제주형 노인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아라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 “지방자치와 노인복지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와 제주도」, 제주도 지방자치연구회, 1990.
- 허경희, “노인정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8.
- 허 홍, “한국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 현두일, “한국노인의 생활구조에 관한 사회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20권, 1976.
-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3) 其他

- 대한노인복지연구원, 노인복지총람, 대한노인복지연구원, 1990.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1994.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제40회, 보건사회부, 1994.
- 제민일보 사설, 1996년 6월 21일 3면.
-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4.
-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제35회, 제주도, 1995.

2. 外國文獻

1) 西洋文獻

- Baumhover, L. A. and Jones, J. D., Handbook of American Aging Programs,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1977.
- Bell, Winfred, Contemporary Social Welfare, New York : Macmillan, 1983.
- Botwinick, J., Aging and Behavior, New York : Springer, 1973.
- Canestrari, R. E., Jr. "Paced and self paced learning in young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1963.
- Cicirelli, V.G. "Adult Children and Their Eldly Parents",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
- C. Tibbitts, Origin Scope and Field of Social Gerontology, 1960.
- Cowgill Donald Q and Lowelyn D. Holmes, Aging and Modernization, NY. : Appleton Century-Crofts, 1972.
- David A. Peterson,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3.
- David Landes, "The Creation of Knowledge and Technique : Today's Task and Yesterday's Experience," Daedalus, Vol. 109, No.1, 1980.
- Dianna S. Woodruff, James E. Birren, Aging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 California : Cole Publishing Company, 1983.
- Ernest W. Burgess, Aging in Weston Culture in Burgess ed., Aging in Weston Societies, A Comparative Surve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E.W.Burgess. 著, 森幹郎 譯, 「西歐諸國における老人問題」, 東京 : 社會

- 保障出版社, 1975.
- Goode, W. G.,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3.
- Hultsch, D. F., "Learning to lear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1974.
- Huttman, Elizabeth,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 New York : Free Press, 1985.
-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Loether, H. J., Problems of Aging, Calif : Dikenson Publishing Co, 1975.
- Lowy, Lois, Social Policies and Programs on Aging,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D. C. Health & Co., 1980.
- Nancy W. Sheehan & Paul Nuttall,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Family Relations, 1988.
- N. Krause,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an",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 No. 2, 1991.
- Parmore, Erdman, International Handbook on Aging,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1980.
- R. C. Atcheiy,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Continuity or Crisis ?", Gerontologist, 11, 1971.
- R. W. K. Paterson, 著, 김수일 譯, 「평생교육론」, 서울 : 양서원, 1991.
- Sheppard. H. L.,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6.
- Talcott Parson,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1942.
- Till, R. E., & Walsh, D. A. "Encoding and retrieval factors in adult memory for implicational sentenc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 Verbal Behavior, 1980.

- United Nations, Handbook of Training in the Public Service, New York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Branch, 1956.
- Verner, Coolie, Adult Education, New York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969.
- Watkins, J., A review of Short-term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974.
- Willcocks, A. J.,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 A Study of Pressure Groups and Major Social Policy,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W. T. Goode,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3.

2) 日本文獻

- 岡村重夫, 新しい老人福祉,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1981.
- 大間知千代, 老人福祉學, 下巻, 東京 : 名古屋(中部日本教育文化會), 1979.
- 三浦文夫・岡村重夫 編, 老人の福祉と社會保障, 東京 : 垣内出版, 1979.
- 小山昭作, 高齢者事業團, 東京 : 川島書店, 1984.
- 日高幸男・岡本包治・松本伸夫, 老人の學習, 東京 : 日常出版, 1975.
- 佐藤進, 老人と人権, 東京 : 同文館, 1979.
- 李橋正一, 老後・老人問題,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1980.
- 森幹郎, 政策視點の老年學,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1983.
- 安藤喜久雄, 梅澤孝 編著, 現代社會の變動, 東京 : 新評論,

SUMMARY

A Study of Revitaliza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Elderly

Hong, In-ki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Chang-Young)

The education for promoting the elderly welfare is performed by the elderly school (university). There are 14 educational institutes in Chejudo, and 10 of them, as a branch, are under *the Aged Association of Korea*. The elderly school, in comparison with the population of the aged, absolutely lacks in its number, is not effectively operated, and is out-of-dated in its facilities because of its financial shortage. As lots of groups, like a social group and a religious one, would assume the subject and responsibility of the education, the scrambling phenomena of the operation of the school are appeared. The elderly school does not effectively fulfill its function, because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is out-of-dated and has no substantative contents, and the number of professional staffs for teaching lacks greatly.

In view of these facts, this study aims at revitalizing for the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school (university), which is operated in Association of Chejudo and branches of Shi and Gun under the Aged Association of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its education, above all, this study is examined the

related internal-external study materials and described the educational aim, principle, content, and method for the elderly. After the analytical diagram for the theoretical study would be made, it is tried to find the high variables and the low ones. And the investigation items are decided and the questionnaire is drawn up by this investigation. Being investigated and interviewed 319 undergraduates of 5 the elderly schools of the Aged Association of Korea, 266 ones of them are chosen.

By using the inspection method of χ^2 in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the simple analysis of each question and the crossing one between general items and each question are used.

The followings are the methods of revitaliza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elder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analysis:

1) Maximization of the educational participation.

The P.R. activities through mass-media and the commons meeting should be emphasized and also the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must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presentation percentage.

2) Security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s.

The regulations, which is systematically distributed professional persons for heightening the speciality of the management staffs in the elderly school, should be made, or the continuing special education of the present teaching staffs must be needed.

3) Supplement and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the education.

The specialized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the educational work of the elderly must be supplemented and distributed. If it is impossible to do so, the continuing special education for the officers should be required. Also, it might be considered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 to unify the educational work of the elderly.

4) Varieties of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he educational contents for early diagnosis and preliminary prevention of physical illness of the elderly should be involved and the programs for solving the mental-health problem must be developed. Being established the counsel office for mental-health in the elderly school, it is desirable for mental doctors to consult the problem of the elderly. A dialog course between students of the elderly and among a woman group, a young people's group, and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involved into the educational programs. The programs are useful for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older one. The curriculum of the elderly school is desirable to involve the courses for Chinese characters and loyalty and filial piety to do volunteering services. As the educational method is emphasized on the field-work,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school and Kyoung-ro Dang (a meeting place of a member of the elderly) might be duplicated. Therefore, it is good to plan the curriculum related to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young-ro Dang.

5) Security of professional lecturers.

The teaching staff of the school must be made up of professional persons who majored in pedagogy, social education, counsel-psychology, and the elderly welfare in college, and finished the regular courses in the related educational institutes.

6)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Useless ones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and machine-furniture used in now should be exchanged or repaired. In addition, the facilities for a cold and heated room, and machine-furniture, like audio-visual texts, should be fully equipped with the ensured purchase budget.

7) Security of operating funds of the school.

For security of the funds, it should be examined to how to organize "a society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school," which is made up of the chief of the regional body, interested persons, and benefactors who work for the good of the regional community.

It is desirable for students of the elderly to pay a minimum school fee.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positive connection with the policy planner for enlargement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al institute.

8) Operation of extension lectures in the regional university.

It is indispensable to open extension lectures for the elderly in the regional university.

Finally, revitaliza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elderly can be carried out when three of the followings--the operating subject of the education of the elderly,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the social community--have correla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education.

附 錄

- <부록 1> 1995學年度 講師現況
- <부록 2> 1995學年度 教科課程
- <부록 3> 老人大學運營規定
- <부록 4> 老人學校運營規定
- <부록 5> 調查 設問紙

<부록 1> 1995學年度 講師現況

학교명	강사명	직업(현직 또는 전직)	비고
제주도노인대학	김 인 회	제주도노인대학장	
	홍 순 만	한라일보 논설위원	
	고 문 승	제주전문대학교 교수	
	강 영 학	BBS연맹회장	
	문 창 하	약사	
	박 위 규	한의원 원장	
	김 관 옥	전 제주경찰서장	
	진 성 기	향토문화	
	문 정 기	노래사무처장	
	강 종 화	시조인	
	문 복 희	생활체육에어로빅 강사	
	고 성 옥	국악인	
제주시노인학교	고 경 옥	전 교육장	
	박 위 규	한의원 원장	
	강 영 학	BBS연맹회장	
	고 남 준	전 중등교장	
	오 남 호	전 중등교장	
	박 중 홍	전 중등교장	
	문 복 희	생활체육에어로빅 강사	
	강 세 범	치과의원 원장	
	현 화 진	교육위원	
	이 동 일	동일의원 원장	
	김 봉 옥	전 중등교장	
	문 정 열	법률상담소장	
	전 영 제	전 교장	
	강 익 진	전 교장	
	고 원 근	전 교장	
	양 재 훈	전 교장	
	고 맹 선	전 교장	
	고 문 승	제주전문대학 교수	
	문 태 수	공무원(부시장)	
	박 위 규	한의원 원장	
서귀포시	변 영 탁	서귀포시 노인학교장	
노인학교	오 운 식	전 교육공무원	

학교명	강 사 명	직업(현직 또는 전직)	비 고
서귀포시	김 홍 수	전 공무원	
노인학교	고 지 선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세화노인학교	부 영 선	농업	
	노 행 중	약사	
	박 위 규	한의사	
	김 성 만	농업	
남읍노인학교	진 희 숙	농업(노인학교장)	
	김 관 옥	농업(전 경찰공무원)	
	김 옥 동	노인회 사무국장	
	김 봉 옥	향토사학자	
	김 잉 희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장	
	김 성 희	에어로빅강사	
	강 상 주	남제주군수	
표선노인학교	고 부 강	표선중학교장	
	강 홍 수	면 복지계장	
	강 유 삼	성산수협장	
	오 복 식	표선신협 전무	
	오 경 생	남군 복지과장	
	고 은 희	소 장	
	고 창 호	표선초등학교장	
	이 동 백	표선노인학교장	
	박 재 범	남군보건소	
	강 태 훈	남제주군수	
	이 동 백	표선노인학교장	
	고 경 하	표선분회부회장	
	김 두 혁	표선상고교장	
	김 승 환	전 표선회장, 면 원로회장	
	김 잉 희	제주노인대학장	
	고 창 호	표선초등학교장	
	장 정 환	성산포 전화국표선분국	
	강 명 훈	생활체육회	
	문 복 희	생활체육회	
	강 형 정	생활체육회	
	좌 태 진	대정노인학교장	
대정노인학교	오 용 석	대정과출소장	
	지 봉 수	대정읍 분회장	
	김 준 희	대정읍장	
	김 동 규	도의원	

학교명	강사명	직업(현직 또는 전직)	비고
대정노인학교	문 상 수	남제주군의원	
	송 권 익	대한노인회 남군지회장	
	강 상 주	남제주군수	
	한 대 숙	대정의원 원장	
	이 창 훈	대정여고 교사	
	배 정 미	모슬포교회 교사	
	고 평 준	지회 사무국장	
	강 은 희	무릉국교 교사	
	강 현 정	도 생활체육협의회 교사	
	문 복 회	"	
	한 현 주	"	
	이 애 숙	동방약국 약사	
	강 중 언	남제주군수	
	장 근 호	모슬포 수협회장	
	강 부 협	강부협치과의사	
	박 중 순	지회 위임강사	
	이 동 수	전 대정고교장	
	김 동 익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문 태 수	대정읍 개발협회장	
남원노인학교	강 상 주	남제주군수	
	강 태 훈	남제주군수	
	오 운 식	남원초등학교장	
	강 중 언	부군수	
	고 진 부	고신경정신과원장	
	강 택 수	의귀초등학교장	
	박재범 외 1	보건소직원	
	오 동 옥	의귀초등학교장	
	강영분 외 4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강사	
	강 명 옥	남원파출소장	
성산노인학교	송 서 옥	서귀포경찰서 안전지도계장	
	송 권 익	군 지회장	
	강 상 주	남제주군수	
	한 공 익	군의회의원	
	한 성 담	도의회의원	
	현 인 옥	성산농협장	
	변 정 일	국회의원	
	고 진 부	고신경정신과원장	
	강 동 휘		
	한 상 호	성산중학교장	

학교명	강사명	직업(현직 또는 전직)	비고
성산노인학교	박 중 순	한국부인회 남제주군지회장	
	오 대 현	표선노인학교장	
	강 태 훈	남제주군수	
	김 윤 조	남원노인학교장	
	홍 원 우	읍장	
	오 석 천	교무주임	
	현 승 우	교장	
	박 중 순	한국부인회 남제주군지회장	
안덕 노인학교	강 동 조	면 장	
	김 영 순	노인학교장	
	변 성 도	군부지회장	
	고 평 준	군사무국장	
	제주도생활		
	체육협의회		
	강 운 팔	안덕분회 부회장	
	이 봉 일	노인학교 근무	
	문 순 회	면 복지계장	

자료 : 제주도 가정복지과, 제주도 노인대학, 제주시 노인학교, 서귀포시 노인학교, 세화노인학교, 남읍노인학교, 표선노인학교, 대정노인학교, 남원노인학교, 성산노인학교, 안덕노인학교

<부록 2> 1995學年度 教育課程

학교명	교과과정		비고
	과목명	교육시간	기간
제주도 노인대학	1. 천제에 대해 축문	2	'95. 4-'96. 3
	2. 노인역할	1	
	3. 제주도 역사에 대하여	1	매주 금요일
	4. 우리나라와 제주도 역사	1	13:00-15:00
	5. 노인건강	4	
	6. 청소년선도	1	
	7. 노인복지법	1	
	8. 서예	1	
	9. 시조	1	
	10. 향토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1	
	11. 민요	1	
	12. 노인교육의 필요성	1	
	13.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	1	
	14. 레크레이션	2	
세주시 노인대학	1. 일반사회	1	'95. 4 '96. 3
	2. 건강관리	8	
	3. 청소년선도	1	매주 수요일
	4. 세계화와 통일정책	1	13:00-15:00
	5. 시조	1	
	6. 레크레이션	3	
	7. 향토사	1	
	8. 청소년교육	1	
	9. 예의범절	1	
	10. 현대사회적응	1	
	11. 시정운영에 대하여	1	
	12. 도덕부흥	1	
	13. 교양강좌	2	
서귀포시 노인대학	1. 윤리와 도덕	2	'95. 2-'95.12
	2. 국내외 정세	2	
	3. 건강관리	2	매주 화요일
	4. 노인여가 선용	2	10:30-12:30
	5. 노인회 운영 및 조직강화	2	

학교명	교과과정		기간	비고
	과목명	교육시간		
서귀포시	6. 사회봉사 및 적응력 배양	2		
노인대학	7. 기타 시책홍보	2		
세화	1. 향토사, 지역경제	월2	'95. 3-'96. 2	
노인학교	2. 건강관리	월2		
	3. 레크레이션	월1	매월	
	4. 한방, 침구 및 민간요법 등	월1	10,20,30일	
	5. 기 타	월1	10:00-13:00	
납읍	1. 서예, 한시	월3	'95. 3-'96. 2	
노인학교	2. 시조	월2		
	3. 게이트볼 교습	월1	매주 토요일	
	4. 향토사	월1	16:00-18:00	
	5. 사회,경제분야	월1		
	6.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	월2		
표선	1. 국가시책	6	'95. 4-'95.10	
노인학교	2. 건강관리	7		
	3. 윤리	12	매주 화요일	
	4. 생활체육	4	10:00-12:00	
대정	1. 지역 치안유지와 노인의 역할	1	'95. 5-'95.10	
노인학교	2. 대한노인회 조직과 목적	1		
	3. 군정 소개 및 농촌경제	1	매주 금요일	
	4. 노인복지정책	1	14:00-16:00	
	5. 농·어촌의 발전	1		
	6. 대정읍 개발과 미래의 전망	1		
	7. 대정의 역사와 발전	1		
	8. 지방자치와 올바른 선거	1		
	9.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1		
	10. 교육의 목적	1		
	11. 오좌수 해설	1		
	12. 유태의 복지제도	1		
	13. 도덕성 회복과 노인의 역할	1		
	14. 노인의 사회역할 및 활동	2		
	15. 노인강령과 경노현장	1		

학교명	교과과정		기간	비고
	과목명	교육시간		
대정	16.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	1		
노인학교	17. 노인의 인생관	1		
	18.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노인의 자세	1		
	19. 건강관리	4		
	20. 레크레이션	13		
	21. 견학	2		
남원	1. 국가시책	2	'95. 3 '95.10	
노인학교	2. 노인건강관리	14		
	3. 생활체육	6	매주 토요일	
	4. 교통질서	4	10:00-12:00	
	5. 기타	2		
성산	1. 국가시책	10	'95. 4-'95. 9	
노인학교	2. 노인건강관리	10		
	3. 역사	6	매주 토요일	
	4. 윤리	10	14:00-16:00	
	5. 오락	2		
안덕	1. 국가시책	2	'95. 7 '95.12	
노인학교	2. 노인건강관리	4		
	3. 노인의 지위향상	2	매주 금요일	
	4. 생활체육	2	10:00-12:00	
	5. 오락	10		
	6. 음악	4		

자료 : 제주도 가정복지과, 제주도 노인대학, 제주시 노인학교, 서귀포시 노인학교, 세화노인학교, 남읍노인학교, 표선노인학교, 대정노인학교, 남원노인학교, 성산노인학교, 안덕노인학교

<부록 3>

노인대학운영규정

제정 1981. 7.10

개정 1983. 9.13

개정 1989. 4. 7

제1조(명칭) 연합회에 설치되는 노인지도자 교육기관으로서 00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이라 한다.

제2조(대학의 성격) 본 대학은 一線各級會 노인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지도자로서 역할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학의 운영) 노인대학은 시·도 연합회장의 감독하에 노인대학장이 운영한다. 노인대학장은 사회적명인사나 다년간 교육계 봉사자로서 연합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목적) 일선 노인지도자들을 교육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확립과 기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있음.

제5조(교육내용) ①노인자세와 역할

②지역사회와 老人會 활동

③국내외 정세

④노인회 조직과 운영방안

제6조(강사진) 노인전문가와 대학교수 및 사회적명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정원) 정원은 50명으로 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되 주1회 이상 교육으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본 규정 제2조의 방침에 준하여 시·군·구·지 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연합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연합회 회장이 이를 선발한다.

제10조(졸업인정) 제8조의 이수과정을 필한 자는 졸업증서(대학장 명의)를

수여한다.

제11조(대학설립인가) 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합회는 본 운영규정에
의한 제반 학칙을 제정하여 중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료 :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록 4>

노인학교운영규정

제정 1981. 7.10

개정 1983. 9.13

개정 1989. 4. 7

제1조(명칭) 본회 각 지회에 설치되는 노인교육기관은 00지회 부설노인학교라 칭한다.

제2조(운영책임) 노인학교는 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지회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3조(교육목적) ①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②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③노인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고
④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서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으로는 교양과목 30%, 국내외정세 30%, 기능습득 20%, 건강관리 및 기타 20%로 한다.

제5조(강사진) 강사는 대학교수, 전문가, 기타 사회적명인사로 구성한다.

제6조(정원)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단, 교실 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이수기간) 이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수업시간) 총 수업시간은 48시간으로 하되 매주 1회 2시간씩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휴강) 수업일이 국정공휴일, 정부지정휴일에는 휴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해당 지역지회장, 분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노인과 특별지원자로 한다.

제11조(입학지원절차)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 소형사진 2매

제12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학교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무단결석자
2. 품행이 불량한 자

제13조(졸업인정) 재학중 제반 언행과 학습실태 등을 고려하여 졸업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절차) 노인학교에는 다음의 교직원을 두되 지회장은 노인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장을 선발하여 해당 연합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명한다.

1. 교장 1인
2. 교무담당 1인

제15조(재정 및 감독) 노인학교의 재정은 각 지회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 실정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자치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단, 지회장은 노인학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설립)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여 연합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료 :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록 5> 調査 説明紙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 노인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송구스럽습니다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컴퓨터로 처리되어 개인적인 입장은 결코 표현되지 않으며 또한 학술적인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1996. 3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법학박사) 한 창 영

연구자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홍 인 기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0 표 또는 V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60세미만()

② 60-64세()

③ 65-69세()

④ 70-74세()

⑤ 75-79세()

⑥ 8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1 무학()

2 서당()

3 초등학교 졸()

4 중학교 졸()

5 고등학교 졸()

6 전문학교 졸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농·수산업() ②개인사업() ③서비스업(숙박업, 음식점 등)()
④회사원() ⑤무직() ⑥기타()

5. 귀하의 생활 정도는?

- ①매우 부유하다() ②부유하다() ③보통이다()
④어려운 편이다() ⑤매우 어려운 편이다()

6. 노인학교(대학)는 어떻게 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 ①신문, TV 등을 보고() ②주변사람의 소개()
③자기 스스로 찾아서() ④노인회원의 소개()
⑤홍보책자, 안내문을 보고() ⑥공무원의 소개()

7. 노인학교(대학)을 출석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 ①노인정에 나간다() ②용돈을 벌기위해서 일을 한다()
③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어린애를 돌본다()
④취미활동(바둑, 장기, 서예 등)을 한다()
⑤종교활동(교회, 절 등 방문)을 한다()
⑥가족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⑦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⑧사회모임에 참석한다()
⑨독서를 한다() ⑩기타()

8. 노인학교(대학)에 어느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까?

- ①아주 잘 출석한다() ②대체적으로 잘 출석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가끔 결석한다() ⑤자주 결석한다()

9. 강의과목 선정이나 강의시간표 작성에 노인학교(대학)운영 종사자들과 의견 교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10. 강사들은 강의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노인들을 공경하는 자세이다() ②대체적으로 공경하는 자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⑤전혀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11. 강사들은 강의를 잘합니까?

- ①매우 흥미롭게 잘한다() ②대체적으로 흥미롭게 잘 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흥미롭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⑤매우 잘하지 못한다()

12. 노인학교(대학)에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 ①대학교수() ②사회저명인사() ③노인문제 전문가()
④건강관리 선생() ⑤관공서 기관장()
⑥교육계에서 정년 퇴직한 선생님() ⑦음악·무용선생()

13.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 ①전부 이해한다() ②거의 이해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⑤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4. 노인학교(대학)에서 어떤분야를 가장 배우고 싶습니까?

- ①건강관리분야() ②노후생활에 관한 분야() ③일반상식·교양분야()
④전문적인 지식(법률,의학 등)분야() ⑤취미·오락활동분야()
⑥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분야() ⑦사교에 관한 분야() ⑧기타()

15. 노인학교(대학) 교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정식교과서가 있으면()
②프린트물로 작성된 교재를 배부해 주었으면()
③시청각교재(TV, 비디오 등)가 있으면()
④오락에 필요한 악기(장고,북,피아노 등)가 있으면()
⑤기타()

16. 교육내용이 자기개발(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②대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⑤전혀 도움이 안된다()

17. 1교시당 강의 시간은 적당하십니까?

- ①매우길다() ②긴 편이다() ③적당하다()
④짧은 편이다() ⑤매우 짧다()

18. 어떠한 교육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
- ②견학·시찰·관광을 통한 방법()
- ③시청각교재(TV 또는 비디오 등)를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 ④전체가 모여서 토론·토의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 ⑤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부하는 방법()

20. 교육시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아주 노후화되어 사용하기가 어렵다()
- ②대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 ⑤매우 좋은 편이다()

21. 가장 필요히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책·결상 교체 및 완비()
- ②강의실 확충()
- ③냉방시설()
- ④난방시설()
- ⑤컴퓨터 교육시설()
- ⑥휴게실()
- ⑦시청각 시설()
- ⑧기타()

22. 휴식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은 어떻습니까?

- ①매우넓다()
- ②대체적으로 넓은 편이다()
- ③그저 그렇다()
- ④좁은 편이다()
- ⑤전혀없다()

23. 학교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행정기관에 요청()
- ②지역사회유지 및 독지가의 후원금 요청()
- ③노인회 스스로 조달()
- ④재학생 스스로 조달()
- ⑤각종 사회단체에 기부금 요청()
- ⑥기타()

24. 노인학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 ②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 ⑤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25. 노인학교(대학) 운영을 위해 귀하는 기부금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 ①아주 그렇다() ②대체적으로 그렇다()
 ③잘 모르겠다() ④거의 없다() ⑤전혀없다()
26. 노인학교(대학) 운영종사자들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②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③그저 그렇다() ④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⑤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27. 노인교육 종사자들은 노인교육에 대해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어느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잘 모르겠다()
 ④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필요가 없다()
28. 노인학교(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②老人福祉관계 법령의 개폐()
 ③교육시설의 확충() ④노인학교(대학)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⑤대학운영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⑥각종 사회단체의 후원() ⑦사회적명인사 및 독지가의 후원()
29. 노인학교(대학) 운영에 본인 스스로 또는 졸업한 학생들의 모임(동창회) 등을 통하여 참가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매우 원한다() ②대체적으로 원하는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거의 원하지 않는다() ⑤전혀 원하지 않는다()
30. 노인학교(대학)에 다니시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 ①강의과목을 늘려야 한다() ②시설확충이 시급하다()
 ③강사선정을 잘해야 한다() ④입학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한다()
 ⑤노인학교(대학) 건물이 단독건물이면 한다()
 ⑥산업시찰을 자주 갔으면 한다() ⑦잘 모르겠다()